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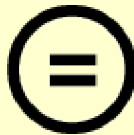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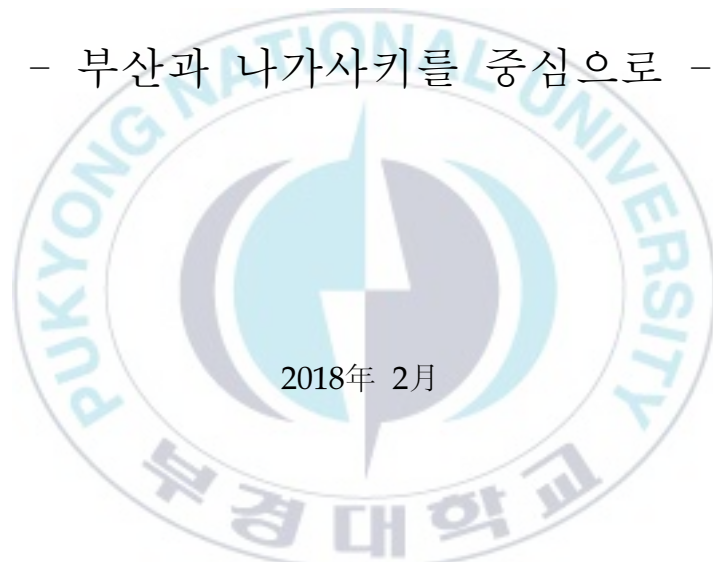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學位論文

한·일 차이나타운 비교 고찰

- 부산과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



2018年 2月

釜慶大學校大學院

史學科

LIU YAN

(劉 岩)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일 차이나타운 비교 고찰

- 부산과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화 진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사학과

LIU YAN

(劉 岩)

LIU YAN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위 원 장 문학박사 조세현 (인)

위 원 문학박사 김문기 (인)

위 원 문학박사 박화진 (인)

목 차

Abstract

제 I 장 머리말	1
제1절 문제관심	1
제2절 연구사 동향	3
가. 한국 화교에 대한 연구 동향	3
나. 일본 화교에 대한 연구 동향	6
제3절 연구방법	8
제 II 장 부산 속의 차이나타운	10
제1절 부산 차이나타운의 성립	10
가. 개항기	11
나. 일제강점기	20
제2절 부산 차이나타운의 변화	28
가. 청관거리에서 차이나타운으로	28
나. 화교 생활상의 변화	34
제3절 부산 차이나타운의 현황 분석	39
가. 거리지도 분석	39
나. 인터뷰사례 분석	46
제 III 장 나가사키 속의 차이나타운	53
제1절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의 성립	53
가. 에도시대 도진야시키	54
나. 도진야시키에서 신지 차이나타운으로	64
제2절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의 변화	65
가. 근대 나가사키의 화교	65

나. 현대 나가사키의 화교	68
제3절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의 현황 분석	80
가. 거리지도 분석	80
나. 인터뷰사례 분석	86
제Ⅳ장 맺음말	93
참고문헌	96



표 목 차

<표 1> 인천·부산·원산의 청국조계지 면적	12
<표 2> 조선 거주 화교의 인구수 변화(1883~1910)	14
<표 3> 개항기 부산 화교의 인구수 변화(1883~1913)	15
<표 4> 부산부 거류 중국인 직업별 호구표	21
<표 5> 부산부 거주 중국인 직업 및 직업별 호구별	22
<표 6> 1931년 경상남도 화교 출신지(籍貫) 상황표	26
<표 7> 해방이후 부산의 화교 인구수	29
<표 8> 부산 차이나타운의 구역별 상점 통계	43
<표 9> 부산 차이나타운 종류별 현황표	43
<표 10> 상해거리 현황표(2007년 8월 현재)	45
<표 11> 상해거리 현황표(2017년 9월 현재)	45
<표 12> 1981년 나가사키 체류 중국인 직업별 구성	73
<표 13> 현대 제일 중국인 인구수 변화	76
<표 14> 나가사키 현 체류 중국인 인구수(2006~2017)	77
<표 15> 나가사키 현 체류 중국인 인구수 변화 상황 통계	77
<표 16> 나가사키 현 체류 중국인 출신지상황 (2006~2011) (명)	78
<표 17> 나가사키 현 출신지 성별 체류 중국인 인구수 순서상황	79
<표 18>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국가별 상점 분포	83
<표 19>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구역별 상점 분포	83
<표 20>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중국 점포 상황표	84
<표 21>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D'구역 점포 상황표	85

그림 목차

<그림 1> 동북아 속의 부산과 나가사키 위치 지도	10
<그림 2> 부산항 전도(1910년대)	16
<그림 3> 부산 행정 구역 지도	39
<그림 4> 부산광역시 동구 지도	40
<그림 5> 부산 차이나타운 위치도	41
<그림 6> 부산 차이나타운의 현황도(2017년 9월)	42
<그림 7> 규슈 속의 나가사키 현	53
<그림 8> 히젠국(肥州) 나가사키 지도(1802년)	59
<그림 9> 나가사키항 조감도(도진야시키·신지 및 데지마 위치도)	60
<그림 10> 도진야시키 지도	60
<그림 11> 도진야시키 기생 유흥도	61
<그림 12> 나가사키 관화·도진야시키 방 그림	61
<그림 13> 명청락(明清樂) 연주 풍경을 그린 그림	62
<그림 14> 용춤도 관람도	62
<그림 15> 도진야시키 광장에서의 거래도	63
<그림 16>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의 위치 지도	64
<그림 17> 나가사키에 거주한 중국인 인구수의 변화(1930년대까지) ...	67
<그림 18> 나가사키 복건성(福建省) 출신자의 거주지(1961년)	75
<그림 19> 나가사키 복건성(福建省) 출신자의 거주지(1981년)	75
<그림 20> 나가사키 신지 차이나타운과 도진야시키 위치 지도	80
<그림 21> 나가사키 신지 차이나타운 현황도(2017년 11월)	82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inatown between Korea and Japan
-Based on the Chinatown in Busan and Nagasaki-

LIU YAN

Departmen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verseas Chinese are people of descendants who live outsid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China(Taiwan). While studying abroad in Busan, Korea over 2 years, my interest regarding the Chinatown in Busan began to develop, in some aspects of the origin,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people living in Chinatown of Busan.

This study will take a close look at the Chinatown in Busan, Korea and one in Nagasaki, Japan. To investigate more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Chinatown between two cities, a comparative was carried out. To large extent, the Chinatown of two cities was compared to each other, covering the life style changes among Chinese living abroad, formation of the their society and development of Chinatown.

This study is based on various Chinese-related research literature from Korea, China and Japan, while providing opportunities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study. And it was attempted to analyze Chinatown through examining its background,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and on-site talks. In

order to get a deeper perspectives of their real lives and thoughts, I also carried out an interview for some Chinese people living in both Busan and Nagasaki.

It clearly show that there are distinc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2 cities, ranging across areas of formation of the Chinese communities, the birthplace, the identity and perception of overseas Chinese over time.

In summary, my study explores not only background history of Chinatown establishment, but also current status of overseas Chinese that should not be neglected. In that sense, continuous studies on Chinatown and overseas Chinese people have to be implemented.



제 I 장 머리말

제1절 문제관심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화교(華僑)는 중화(中華)의 화(華)와 교거(僑居)의 교(僑)가 합쳐진 약칭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교민·교민가족 권익보호법」에 따르면, 화교는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을 가리킨다. 화교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898년 일본의 요코하마에 살던 중국 상인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학교명을 ‘화교학교’라 칭한 데서 유래한다.¹⁾ 영문으로 ‘The Overseas Chinese’ 또는 ‘The Chinese Abroad’라는 뜻으로 ‘해외 화교’라는 뜻이다.

화교(華僑)와 화인(華人)을 구분하게 된 것은 1955년 중국 정부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부터로서, 그 이전에는 양자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화인(華人)이란 외국 국적의 중국계 약칭이다. 화인은 화교나 화교 후손으로 위장해 귀화하거나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가리킨다.²⁾ 사상적, 경제적으로나 혈연적으로도 여전히 화교들과 연계되어 있다.

부산에 유학 온 후에, 필자는 한국어를 배울 때 몇 명의 화교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민자나 그들의 자녀이었다. 그들의 소

1) 김중규, 「화교의 생활사와 정체성의 변화과정 : 군산 여씨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2007, p.112.

2) 國務院僑辦僑務干部學校編, 『僑務工作概論』, 九州出版社, 1994, p.2.

개를 통해서 부산 차이나타운을 알게 되었다. 차이나타운으로 중국 식품을 사러 갔을 때, 또는 중국식당에 식사하러 갔을 때 사장님들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었다. 중국 동북 지방에서 온 한 잡화점 사장님 말하길 자신은 화교가 아니고 다만 한국의 영주권을 얻고 여기서 생활할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중국식당 사장님에게 화교인지 국적이 어디인지를 물었을 때 그는 부산의 모든 화교가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분의 대답을 보면 그들의 화교 개념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의 대답에서도 중국과 화교의 신분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는 중국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필자가 화교 학교를 참관했을 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중화민국(대만) 정부를 상징하는 ‘청천백일만지홍(靑天白日滿地紅)’ 국기이었다. 그리하여 중국 이외 외국에서 거주하는 화교사회의 성립과 그 변화양상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부산 화교는 어떤 변천을 겪었으며, 부산 화교들이 다양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조국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또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현재 차이나타운 화교 생활상 현황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해외 차이나타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부산은 개항 이래 제일 먼저 일본인 거류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에서 청국 조계지 등이 건립되었다. 나가사키 또한 주요 항구도시로서 에도시대엔 외국과의 교류가 허가된 일본의 유일한 국제 항구도시였다. 나가사키엔 에도시대부터 중국인 거류지인 도진야시키(唐人屋敷)가 존재하였다.

이에 한·일 양국 대표적 항구도시이자 대표적 차이나타운의 존재하는 부산과 나가사키를 대상으로, 전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해외 화교의 역사적 변화 및 현황·문제점 등에 대해 상호 비교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사 동향

가. 한국 화교에 대한 연구 동향

한반도는 중국인이 육지를 통해 가장 먼저 국외로 이주해 온 곳으로,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화교에 대해 ‘구(舊)화교’와 ‘신(新)화교’의 구분이 있다. 1992년 한·중 수교를 기준으로 하여 옛 화교들을 ‘구(舊)화교’라고 부르고, 수교 이후 중국 대륙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화교들을 ‘신(新)화교’라고 부른다.

일찍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원세개(袁世凱)·당소의(唐紹儀) 등 관리들을 조선으로 파견했을 때부터 1899년 청나라 정부와 대한제국이 수교한 이후 역대 주한 공사와 영사관 관원들은 청나라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에 현지 화교 현황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문적인 보고서들은 당시 한반도 화교사회 전체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1930년대 한국 화교에 대한 연구가 시작했지만 전문적 연구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王正廷(왕정정)의 1930년대 『조선의 화교 개론』은 중국 정부 측에서 시행한 최초의 한반도 화교 현황 조사 자료이다³⁾. 이것은 당시 주조선중국외교기관이 외교부 당국에 제출한 업무 보고이므로 한반도 화교에 관한 전문 연구 성과라고는 할 수 없다. 1931년 7월 만보산사건(万宝山事件)이 발생한 이후 중국 국민당 중앙 홍보부가 편집 출판한 「만보산사건 및 조선 화교 배척 학살 사건(万宝山事件及朝鮮排華慘案)」은 홍보 자료로

3) 王正廷, 『朝鮮華僑概論』, 조선 주재 외교 기관이 외교부 당국에 제출한 업무 보고, 1930.

서 한 부분적으로 당시 조선반도의 화교 배척 현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국 화교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를 시초로 1950~1960년대의 연구들이 있다. 이 시기에는 한·중 수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 화교 역사 연구에 대한 연구는 먼저 대만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전쟁 직후 1956년, 대만 로관군(盧冠群)의 『한국 화교 경제(韓國華僑經濟)』가 출간되었다.⁴⁾ 1958년 대만 화교지 편찬 위원회의 『화교지-한국(華僑志-韓國)』⁵⁾ 및 1960년 장조리(張兆理)의 『한국의 화교 교육(韓國的華僑教育)』⁶⁾은 한국 화교의 경제와 교육에 대한 최초의 시스템을 정리한 것이다. 대만 학계가 한반도 화교의 역사와 현황 연구에 처음으로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3년 대만 한국연구학회의 『려한 60년 견문록-한국 화교 사회(旅韓60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는 한반도 화교 연구 최초의 구술 자료이다.

중국 대륙 학자들의 화교 연구는 처음에는 북한 화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부터 점차 한국 화교로 향했다. 1990년대 한중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연구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다. 1991년 양소전(楊昭全), 손옥매(孫玉梅)의 『조선 화교사(朝鮮華僑史)』는 당시 중국 학계의 전문적인 최초의 한반도 화교 역사학 관련 연구 저술이다. 이 책은 '화교사는 중국 사회의 발전을 주요 근거로 삼아야 한다'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한반도 화교사는 고대(은(殷)왕조 말기, 주(周)왕조 초기~청(淸)왕조 중기), 근대(1840년~1949년), 현대(1949년 이후) 3시기로 나뉘어 있다. 1996년 주혜령(朱慧玲)의 『한국 화교 사회의 변천과 특징』은 중국 대륙 학계에 있어서의 한국 화교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비교적 이른 개괄적인 연구이다. 2005년 중국학자 이옥련(李玉蓮)은 한국에서 박사논문 「근대 한국 화교 사회 연구」를 완성했다. 이 논문은 근대 한국의 화교 사회가 1883년 초에 인

4)로관군(盧冠群), 『한국 화교 경제(韓國華僑經濟)』, 대북, 해외출판, 1956.

5)대만 화교지 편찬 위원회(華僑志編撰委員會), 『화교지-한국(華僑志-韓國)』, 대북, 1958.

6)장조리(張兆理), 『한국의 화교 교육(韓國華僑教育)』, 대북, 세계문화출판사, 1960.

천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최초의 한국 화교는 1882년 8월 오장경(吳長慶)이 한국에 파견한 40여명의 ‘병역 상인’이다. 광둥(廣東)성, 절강(浙江)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남방 지역 상인들이었다. 현재 90%이상을 차지한 산둥(山東)성 출신 화교는 일본 식민지 시절에 한국에 유입된 것이다.

한국 학계의 한국 화교 역사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1973년 고승제(高承濟)의 『한국 이민사 연구』⁷⁾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화교들이 한반도로 이주하는 과정을 탐구하여 사회사적 측면에서 초기 화교 사회의 직업 구성 및 경제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후에 한국 학계에서 한반도 화교 연구에 관한 석사 학위 논문이 잇따라 나왔다. 예를 들어 1972년 담영승(譚永盛)의 석사 학위 논문 「조선 말기 청나라 상인에 관한 연구-1882년~1885년」⁸⁾는 사회사·경제사 시각에서의 한국 화교사 연구이다. 한반도 화교의 초기 형성 과정을 전문적으로 고찰하여 일본 나가사키, 오사카, 고베, 요코하마에 거주했던 중국 상인들이 일본 상인들과 함께 한반도에 들어온 것이다. 그들을 한반도 화교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1978년 박영석(朴永錫)의 『만보산사건 연구-일본의 대륙 침략 정책 일환으로서』⁹⁾는 1931년 만보산사건 관련 전문적인 연구이다. 다만 당시 한반도 화교들이 박해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나 한반도 화교들의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내용은 아니었다. 1980년대는 한국 화교에 대한 연구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 1981년 박은경은 「한국 화교 사회의 역사」¹⁰⁾를 통해, 화교들이 한반도에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 고찰했다. 1993년 권석봉(權錫奉)이 발표한 「淸日戰爭 이후의 韓淸關係(1894~1899)」¹¹⁾에서는 청일전쟁 이후 한청 관계에 대하여 심도 깊은 고찰을 펼쳤

7) 高承濟, 『韓國移民史研究』, 章天閣, 1973.

8) 譚永盛, 「조선말기의 청국상인에 관한 연구-1882년~1885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9) 朴永錫, 『萬寶山事件研究: 日帝大陸侵略政策の一環으로서』, 亞細亞文化出版社, 1978.

10) 박은경, 「한국 화교 사회의 역사」 『진단학보』, 제52집, 1981.

11) 權錫奉, 「淸日戰爭 이후의 韓淸關係(1894~1899)」,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

다. 1999년 최승현(崔承現)은 『전환 중의 한국 화교』¹²⁾ 속에서 당시 한국 화교 사회의 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그의 관심사는 한국 화교 사회의 역사 변천과 그 정체성 문제 등으로 한국 화교는 근대 역사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특히 한반도 역사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화교에 대한 일본인의 연구는 줄곧 하나의 공백이 있었다. 1945~1991년의 40여 년 동안 1969년 미도리카와 카쓰코(綠川勝子)의 만보산사건과 조선 화교 배척 사건과 관련된 논문만을 볼 수 있으나¹³⁾ 한반도 화교 역사에 관한 전문 연구는 아니다. 2000년 3월 일본 오사카에 설립된 재일 한국화교연구회는 국제학계는 현재 유일한 한반도 화교 역사와 현실 문제에 대한 전문 연구단체다. 일본 학계의 한반도 화교에 대한 연구사의 특징을 말하자면 한반도 화교들의 근대 동남아시아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의 위상과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1990년대 이래 일본 학계의 중요한 연구 경향이다. 2004년 재일 한국계 학자인 이정희는 양필승과 함께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¹⁴⁾을 출판했다.

나. 일본 화교에 대한 연구 동향

일본 화교에 대한 연구는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에 시작되었다. 지역적으로 일본에서는 동남아시아 화교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내용상으로는 화교들의 일반적인 상황 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 목적은 제국주의 침략을

소, 20집, 1993.

12) 최승현, 「轉折中的旅韓華僑」 『華僑華人歷史研究』, 1999.

13) 綠川勝子, 「万宝山事件及び朝鮮内排華事件について一考察」 『朝鮮史研究會論文集』, 朝鮮史研究會, 1969.

14)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삼성경제연구소, 2004.

위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연구였다.

태평양 전쟁 이후 침략 전쟁의 필요성 때문에 일본 화교 연구는 이 시기부터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전전(戰前) 연구의 최고봉에 도달하였다. 나리타 세츠오(成田節男)는 『화교사』¹⁵⁾에서 일본의 대다수 연구가 화교 현황에 대한 연구로서 역사적 고찰을 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연구는 일본 학계의 비교적 수준 높은 화교 통사이자 일본인의 남양 화교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저서였다. 그리고 이무라 시게오(井村熏雄)의 『중국의 금융과 화폐』¹⁶⁾, 이데 키와타(井出季和太)의 『남방 화교론』¹⁷⁾, 『화교』 등 연구도 있다. 이 시기에 일본은 대량으로 외국 저서도 번역했었다. 예를 들어 구한평(邱漢平)의 『화교 문제』¹⁸⁾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침략 정책에 맞추기 위하여 이 시기의 조사 보고서 자료가 매우 많았는데 비록 정치적 목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훗날의 연구자들에게 대량의 가치 있는 연구 자료를 남겨 놓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화교 연구는 다음의 4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첫째, 침략을 위한 강렬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정치적인 정보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전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를 그 연구의 중점으로 했다. 둘째, 연구 성과는 많으나 학술적 가치가 적다. 이 시기의 저서에는 기초 자료와 보고서가 많고 객관적으로 연구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다. 셋째, 화교들의 경제 조사에 치중했다. 일본은 남양 지역 화교 경제를 매우 중시했다. 넷째, 연구자의 구성이 매우 복잡했다. 연구자보다는 정부 관료, 중국 문제 전문가 등의 저작이 많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화교·화인 연구는 시대에 따라 그 연구 대상이 달라졌다. 전후(戰後)에는 주로 화교의 경제 역량에 대해 연구했다.

15) 成田節男, 『華僑史』, 螢雪書院, 1941.

16) 井村熏雄, 『중국의 금융과 화폐』, 東京大阪屋号書店, 1924.

17) 井出季和太, 『南方華僑論』, 中央公論社, 1943.

18) 邱漢平, 『華僑問題』, 商務印書館, 1936.

1960년대엔 사회사적 시각에서 화교 연구를 추진되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적 시각이 그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운동의 영향 아래 화교의 경제적 능력이 중시되었다. 화교 연구에 풍부한 성과가 나타났다. 최신의 화교 연구 중에 과방(過放)의 저작인 『재일 화교의 자아 정체성 변화』¹⁹⁾가 중시할 만하다. 과거에 화교에 대한 연구들이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었는데 대해서 동남아시아 화교들을 연구 주제로 한 것이 많이 보인다. 한편 일본에 거주하는 화교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과방은 재일 중국동포의 자아 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가 화교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근년에 출판된 화교관련 연구 성과 중에 야마다 노부오(山田信夫)의 『일본 화교와 문화 마찰』²⁰⁾, 대국휘(戴國輝)²¹⁾, 왕유(王維)²²⁾, 주혜령(朱慧玲)²³⁾ 등의 저작들이 있다.

제3절 연구 방법

현대 세계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지역 국가 간의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는 기초 위에서만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의 왕래 역사는 유구하고, 영향은 심대하다. 중국인의 해외 활동과 이주는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화교들은 세계 각지에 널리 퍼져 있고 중국과 다른 나라 간의 교류의 촉진자이자 증인이고 국가 간 상호 인식과 이해를 위한 중요한 교량이기도 하다.

19) 過放, 『在日華僑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変容』, 東信堂, 1999.

20) 山田信夫, 『日本華僑文化摩擦』, 嚴南堂書店, 1983.

21) 戴國輝, 『華僑-落叶歸根から落地生根への苦悶と矛盾』, 研文出版, 1980.

22) 王維, 『日本華僑における傳統の再編とエスニシティ』, 風響社, 2001.

23) 朱慧玲, 『日本華僑華人社會の變遷-日中國交正常化以後を中心に』, 日本僑報社, 2003.

일본과 한국 화교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연구는 중국인의 해외 활동과 이주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화교들의 고향과 거주지에 대한 정서적·경제적·문화 측면에서의 현황파악을 통해 국가 간의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다.

부산 차이나타운 화교들에 대해 진행한 인터뷰 등을 통해 신·구 화교 사이에는 교류 상의 왕래는 있지만 이념적으로 명확히 다른 입장을 각각 갖고 있는 사실을 발견되었다. 재일·재한 화교, 중국인, 그리고 앞으로 일본이나 한국으로 도래할 의향이 있는 중국인들은 화교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상호간의 역사·문화적 갈등을 극복하여 상호 왕래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으로 화교 경제의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가 간 교류를 촉진시키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연구 목적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화교, 특히 항구도시 부산과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시대적으로는 일본의 경우, 중국인들이 일본 사회 진출이 시작한 에도시대부터이고, 한국의 경우는 조선의 개항기시대부터이다. 지역적으로 볼 때 화교들은 한·일 양국에서의 생활·활동분포 범위가 넓기 때문에 화교사회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화교 생활과 경제 활동의 주로 거류지인 차이나타운을 본 연구의 지역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고대 이래 해양교류가 활발했던 한국의 부산과, 나가사키의 차이나타운에 그 연구 대상을 한정했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기존 연구문헌 및 인터뷰, 차이나타운 거리현황 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사 동향, 연구방법에 대해서 언급했다. 제Ⅱ장에서는 부산의 도시 개관을 비롯하여 부산 차이나타운의 성립·변화·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제Ⅲ장에서는 나가사키의 도시 개관을 비롯하여 에도시대 도진야시키 성립,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의 변화·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한국 부산 및 일본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에 대한 비교 분석을 바

탕으로 한·일 양국 화교 사회의 특징에 대해 분석·검토를 하였다.

제Ⅱ장 부산 속의 차이나타운

제1절 부산 차이나타운의 성립

부산은 지리상으로 북위 34°53'10", 동경 129°12'38"에 위치한다. 여러 나라들과 연결되는 한국 제1의 무역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약 360여만 명에 이르는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 행정적으로는 서울에 이어 한국에서도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컨테이너 취급 등의 측면에 있어서는 세계 제5위에 속하는 세계적인 무역항 중의 하나라고 한다.²⁴⁾

<그림 1> 동북아속의 부산과 나가사키의 위치 지도



출처: NAVER Corp/OpenStreetMap

24) 박화진, 『부산의 역사와 문화』, 부경대학교 출판부, 2003, p.4.

가. 개항기

(1) 청국조계지의 설치

(가) 시대적 배경

1876년 조선과 일본 양국 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이후에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항장으로 설정되었다. 부산에 있던 초량왜관이 일본인 전관거류지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조선에서 조계지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²⁵⁾ 조계지 부산에서 일본상인들은 점차 상업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일본인이 점차 부산의 무역과 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1882년 7월 조선에서 임오군란(壬午軍亂)이 발발하자 조선정부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청국의 원조를 요청했다. 청국의 오장경(吳長慶) 제독은 산둥성(山東省) 연대(烟台)에서 군함 3척과 운선초상국(輪船招商局) 상선 2척에 3,000명을 파견하여 조선에 도착하였다. 이때 파견된 사람 중에 청국상인 40명도 포함하고 있었다. 보통 이들 상인을 한국화상의 효시라고 말한다.²⁶⁾

1882년 10월 4일에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통해 조선을 청국의 속국으로 규정하였다. 이 조약을 근거로 하여 조선에서 청국조계지의 설정, 한성의 상업 개방, 청상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청국 상무위원의 파견과 치외법권(治外法權) 부여 등 불평등조약이었다. 이리하여 청상들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수당(陳樹棠: 총판조선상무위원)은 이홍장(李鴻章)의 추천으로 조선에 건너온 후 청국의 군사 압력 하에서

25) 오미일, 「개항(장)과 이주상인」 『한국근현대사연구』 47집, 2008, pp.44-45.

26) 秦裕光,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1983, p.11.

한성과 인천에 상무위원공서(총영사관)와 상무위원분사(영사관)를 설치하고, 또한 개항장 (인천·부산·원산)에 청국조계지를 만들었다.²⁷⁾ 아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25,689.41)·원산(9,191.10)·인천(8,860.00) 세 지방 개항장 중 부산이 가장 넓다.

<표 1> 인천 부산 원산의 청국조계지 면적(단위: m²)

조계지	차지 면적	기타 면적	계
인천	6,762.93	2097.07	8,860.00
부산	20,771.80	4917.61	25,689.41
원산	8,341.70	849.40	9,191.10
합계	35,876.43	7864.08	43,740.51

*참조: 이옥련, 『이천 화교 사회의 형성과 전개』, 인천문화재단, 2008, p.68. 표.

1883년 11월 일본 고베에서 공흥호(公興号)라는 무역 상점을 하고 있던 광둥 출신 화상 황요동은 직원 두 명을 부산에 보내어 공흥호 지점(덕흥호)을 내려고 하였다. 부산의 일본전관거류지 안에 지점을 내려고 준비하던 중 일본상인들과 충돌이 일어났다. 일본상인들이 덕흥호의 개업을 방해하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양국 상인 사이의 충돌이 청국과 일본의 외교적 문제가 되었다.²⁸⁾

이 사건의 원인은 청·일 양국이 일본조계지의 성격에 대해 견해가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수당은 조선정부를 통해 일본 관리에게 사건의 시말을 물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청국 측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조선정부는 일본조계지 내에서 개점하려면 일본과 협의를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청국 측에게 청국조계를 따로 설정하는 편이 낫다고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진수당은 이 제안에 동의하였으나 부산이 아닌 우선 청국에서 가까운 항구이자 한성의 입구인 인천에 청국 조계 부지를 설정했

27)조세현, 『부산화교의 역사』, 산지니출판사, 2013, p.25.

28)秦裕光, 앞 책, p.12.

다. 이처럼 청국은 일본 다음으로 조선에 전관거류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청상을 위해 중화회관을 세워주었다. 진수당은 인천에 청국 조계지를 설정한 후 부산으로 내려와서 덕흥호 사건에 대해 조선 측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청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조선은 결국 덕흥호를 다른 지역에서 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여 조선 측이 피해액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청국 측은 부산에 있던 청국인 14명을 보호하기 위해²⁹⁾ 동래감리와 협의하여 청국상무공서부산지서(淸國商務公署釜山支署, 즉 청국영사관)를 설치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나온 덕흥호는 일본 고베에 있는 무역상점이다. 이것은 부산 초기 화교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화상이 적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1883년~1885년 무렵 부산화교의 출신지를 분류한 어떤 연구에는 산동계가 1명, 광동계가 10명, 절강계가 2명이라는 통계가 남아 있다. 부산의 경우 청국 본토의 상인보다는 일본화상의 영향이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천도 산동계 111명, 광동계 123명, 절강계 74명이며, 원산 역시 산동계 14명, 광동계 27명, 절강계 19명이라는 통계가 있어 세 도시 모두 광동계가 우위를 이룬다. 산동계는 한성에서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였을 뿐이다.³⁰⁾ 즉 광동·절강계 출신의 화교가 많다는 점은 부산 초기 화교 출신지를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나) 설치 과정

1884년에 조계지를 의미하는 지계표석을 설치했지만 조선정부가 계속 거부하자 결국 원세개의 강요에 의해 1887년에 공식적으로 부산의 청국조계지가 공인되었다. 이로 인해 청국조계지의 실질적인 설정은 지계표석을 세운 1884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³¹⁾ 청국은 조선의 각 개항장에 상무공서와

29) 김태만, 『내 안의 타자(他者): 부산 차이나이스 디아스포라』,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9, p.56.

30) 譚永盛, 앞 논문, p.52.

31) 손정목, 『한국 개항기 도시 변화 과정 연구: 개항장·개시장·조계·거류지』, 일지사, 1982, p.109.

상무분서를 설치하고 상무위원을 파견하였다. 상무위원의 담당 업무는 외교와 무역 및 조계지 관리 등이었다. 부산분서의 임원은 상무위원을 포함해 모두 10명이었으며³²⁾, 1885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표 2> 조선거주 화교의 인구수 변화(1883~1910)

연도	총 인구(명)	남(명)	여(명)	여성비율(%)
1883	162			
1884	666			
1885	264			
1886	468			
1891	1,489			
1892	1,805			
1893	2,182			
1906	3,661	3,534	127	3.5
1907	7,902	7,739	163	2.1
1908	9,978	9,600	378	3.8
1909	9,568	9,163	405	4.2
1910	11,818	10,729	1,089	9.2

*참조: 楊昭全·孫玉梅, 『朝鮮華僑史』, 中國華僑出版公司, 1991, p.125.

조세현, 앞 책, p.26. 재인용.

<표 2>는 개항기 조선에 거주하던 화교의 인구수 변화의 추이이다. 조선거주 인구수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83년도에 162명의 인구가 1891년도 1489명, 1906년 3661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둘째, 1907년 이후 인구 증가 현상이 매우 두드러진다. 1907년 7902명, 1908년 9978명, 1910년 11,818명으로 20년 전(1883년)에 비해서 약 백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다. 셋째, 통계 속의 뚜렷한 특징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화교의 남성 비율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았다. 1906년의 남성인구가 3,534명인데 비해 여성인구수는 단지 127명이다. 이 현상은 이 시기에 남성중심의 독신형 출가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

32) 譚永盛, 앞 논문, p.30.

다. 이런 남녀 비율의 추세는 부산도 예외 아니다.³³⁾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 직후 조선에 들어온 청상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의 개항기에서 국제무역에 종사하던 무역상들이었다. 게다가 초기의 조선 내 청상 점포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에 본점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에 지점을 낸 것이었다.³⁴⁾ 초창기 한국화교가 청국의 지원으로 세력을 확대한 것이야 말로 한국 화교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3> 개항기 부산 화교의 인구수 변화(1883~1913)

연도	인구수(명)	연도	인구수(명)
1883	(14)	1892	148
1884	15	1893	142(144)
1885	17	1897	(47)
1886	87(82)	1906	197
1890	(164)	1911	168
1891	138	1913	211

*참조: 개항기 부산화교의 인구수는 불분명하다. 괄호속의 인구수는 다른 연구물 등에서 언급한 불명확한 수치를 기입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양소전·손옥매(1991) 앞 책, p.130 표 및 『清季中日韓關係史料』 권5, p.2978, p.3138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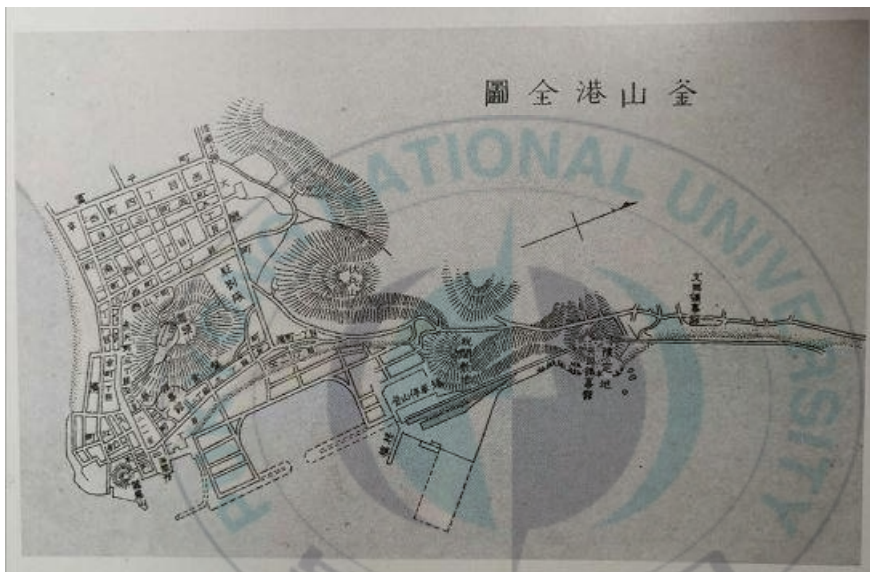
위의 <표 3>와 같이 부산 청국조계지의 화교인구수는 1884년 15명에서 1893년 142명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1886년을 전후하여 급증하였으며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1890년 화교인구수는 160여명 전후를 헤아린다. 1906년 화교인구 197명, 1913년 211명으로 초기의 14~15명 단계에서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청일전쟁으로 잠시 화교들이 대거 귀국한 시기가 있었다. 부산은 인천보다 홀로 이주하는 독신형 이주가 많았기 때문인지 인구의 변동 폭이 심한 듯 보인다. 부산의 청국 영사관 주변에 청국인 거리가 조성되고 화교학교가 설립되었다.³⁵⁾

33)王恩美,『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め勸告華僑一冷戦体制'祖國'意識』,三元社, 2008, p.66.

34)譚永盛,「조선말기의 청국상인에 관한 연구-1882년부터 1885년까지」,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p.20.

동구 초량동에 청국영사관이 설치되어 왜관과 대비되는 말로 ‘청관’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청관이 있던 곳을 ‘청관거리’라고 불렀다. 청국조계지가 있었던 곳에 본래 공동묘지가 있었다. 이것을 동래부가 모두 철거하고 청국상인이 매수하여 점포와 주택을 세웠다. 조선정부가 청국조계지를 통해 건너편의 일본조계지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오른쪽의 지나(支那)영사관이 바로 청국영사관이다.

<그림 2> 부산항 전도(1910년대)



*참조: 『사진으로 보는 近代韓國(上) 산화와 풍물』, 서문당, 1973년, p.194

(2) 청상들의 활동

(가) 청일전쟁 이전

1876년 개항 이래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대표적인 물품은 표면제 품으로 조선 수입 무역품 총액의 80%에 다다랐다. 일본상인들은 서양물품의 상당량을 나가사키에 있는 화교 상점을 통해 상해와 나가사키를 거쳐

35) 황보영희, 「부산 청국조계지에 관한 연구」 『항도부산』 제25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9, pp.423-424.

우회적으로 조선으로 들어왔다.³⁶⁾ 1882년 무역장정이 체결된 이후 중국본토의 청상들도 조선에 대거 진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청상들이 조선과 직접 교역하기 시작했다.³⁷⁾

1884년 12월 갑신정변(甲申政變)이 일어난 이후 청상들은 대국의 위세를 등에 업고 적지 않은 분쟁을 일으켰지만 청국이 치외법권을 남용하여 그들을 보호하자 청상에 대한 불만이 점차 심해졌다. 진수당은 중국 내 유력 상인의 한반도 진출을 권장하자 조선에서는 중국의 남방 및 북방 상인이 모두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원세개가 부임한 이후 조선무역에서 대청수입이 1885년의 19%에서 1893년에는 49%로 상승하였다.³⁸⁾ 1882년~1894년의 약 10여 년 동안 청국의 대조선 속국화 정책 아래 초기 화교 사회가 형성되었다. 조선 화교사회는 해외 화교역사상 전례 없는 전성기를 구가하였다.³⁹⁾

원세개는 조선에 체류한 10년 동안 청상이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조선의 관세행정을 장악하고, 개항장에 분관상무위원을 배치해 해관수입을 감독하였다. 조선경제를 장악하면서 청상들을 지원하여 대조선 무역을 촉진시켰다. 이를 위해 윤선초상국 기선을 조선에 왕래하도록 만들었다. 원세개의 노력으로 청국의 윤선초상국 기선이 청일전쟁까지 정기 운항되자 일본우정회사는 타격을 입었다. 조선의 해운권 및 상권을 둘러싼 각축이 중·일 양국 사이에 벌어졌다. 당시 부산항은 청상들이 교역할 때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골목이었다.

1884년부터 시작된 부산의 중국인에 대해 살펴보면 부산을 거점으로 왕래무역에 종사하는 초기의 청상들은 대부분 중국의 혼춘(琿春)이나 상해(上海), 조선의 원산이나 한성, 일본의 각 도시 등으로 가기 위해서 부산에

36)王恩美, 앞 책, pp.47-48.

37)장진아, 「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현대 동아시아 경제사」 『역사비평』, 2007년 여름호, p.131.

38)홍순권, 『근대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2010, pp.53-54.

39)이옥련, 앞 책, p.28.

잠시 머물렀을 뿐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상업에 종사하지는 않았다. 부산은 원산처럼 혼춘-부산-인천-상해 등을 연결하는 경우지로 기능한 것이었다.⁴⁰⁾

1886년 부산항에 상주하는 청상 및 왕래 청상 명단에서 복건성 출신 상인을 찾을 수 있으므로 복건인이 주류를 이루는 일본의 나가사키 화교사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화교사회에서도 광둥인 다음으로 복건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개항 초기부터 부산은 일본상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한 지역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가사키에서 온 부산 지점장이나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⁴¹⁾ 개항기 청상들의 경영은 대개가 본국 혹은 일본에 본점을 두고 조선에 지점을 설립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 때문인지 초기 조선의 화교들은 대체로 독신행 출가의 화교사회를 구성했다.

원세개는 각 개항장에 상무위원을 배치하여 수입을 감독했으며, 개항장의 세관장도 중국의 추천으로 결정하였다. 청상의 수출입 무역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세로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심지어 청상은 해관을 통하지 않고 조선 연안의 포구에 직접 들어와서 별다른 제약 없이 무역을 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전혀 달랐다. 이런 방법으로 일본 상인을 압박하였다.⁴²⁾

(나) 청일전쟁 이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청국의 기선운항은 전면 중단 되었다.⁴³⁾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사회에서 화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였다. 특히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한 후 조선에서는 중국인을 멸시하는 풍조가 일어났다. 전후 한동안 화교문제는 조선인에 의한 보복과 박해로 표출되었다.

40) 담영승, 앞 책, p.41.

41) 조세현, 앞 책, p.53. (이옥련, 앞 책, pp.84-85의 분석에 따랐다).

42) 박원표, 『향토 부산-부산의 고급시리즈 제3부』, 태화출판사, 1967, p.46.; 김태만, 앞 책, pp.59-60. 재인용.

43) 나애자, 『한국근대해운업사연구』, 국학자료원, 1998, p.227.

1894년 11월 20일 조선정부는 「청상보호규칙」을 만들어 청상 거주지, 내륙 통상, 타 지역 이주 등을 강력히 통제하였다. 재판관할권 역시 조선정부에 귀속시켰다.⁴⁴⁾ 이 규칙은 청상의 불법 활동을 통제하고 청상의 새로운 유입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규칙으로 오히려 청상의 밀무역이 나날이 성행했으며 상권도 확대되었다. 청일전쟁 전후 요동반도 처리문제로 조선과 일본의 권위가 떨어지자 이 기회를 빌려 청상들이 대거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⁴⁵⁾

청일전쟁 이후 약 5년간 조선과 청국은 국교가 단절된 상태였다. 1899년 9월 11일 「한청통상조약」이 맺어지면서 비로소 외교관계가 회복되었다. 두 나라의 상하 종속 관계가 독립국 간의 대등한 관계로 바뀌었다. 새 조약을 통해 실제로는 청국상인의 내지 거주가 가능해졌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청국이사부’를 ‘청국영사관’이라고 불렀다. 한청통상조약으로 부산 화상들의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상의 무역이 위축되지는 않았다.

1899년 부산에 청국영사관이 설치된 이후 이를 중심으로 청관거리가 형성되었다. 청상들이 청관거리의 양쪽에 점포를 겸한 주택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다. 이때 항로도 다시 열렸다. 증가한 화교 중에 노동자도 적지 않았다. 청상 중심의 초기 화교에서 노동자 중심으로 점차 바뀌었지만 대부분이 계절노동 형태라서 부산에서 중국인의 증가가 곧바로 공식적인 화교의 인구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맺어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빼앗으면서 사실상 한국은 식민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1899년에 맺은 「한청통상조약」은 무효화 되어, 1910년 3월 11일에 새로운 「인천·부산·원산 청국조계장정」을 맺었다. 이 조약의 주체가 한

44) 박준형, 「청일전쟁 발발 이후 동아시아 각지에서의 청국인 규제규칙의 제정과 시행-일본, 조선, 대만의 예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47집, 2009, p.241.

45) 조세현, 앞 책, p.58.

국에서 일본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인천·부산·원산의 청국조계지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⁴⁶⁾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이 되자 한국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화교의 지위에 변화가 있었다.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도 허가를 얻어야만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되었다. 그런데 1911년 10월 신해혁명(辛亥革命)이 일어나고 다음 해 1월 중화민국이 성립되었으며 곧이어 청조는 멸망하였다. 1913년 11월 일본이 중화민국을 공식승인하면서 청국화교의 신분에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그 해 12월 「재조선청국조계지폐지협정」(在朝鮮清商租借地廢止協定)을 체결하자 청국조계지가 폐쇄되고 화교들의 집단거주지는 유지되었다. 부산 청관거리의 점포에는 소매업뿐만 아니라 도매업도 성행했다. 일본인들은 이런 청관거리를 ‘중국인거리’, 즉 ‘시나마치(支那町)’라고 불렀다.⁴⁷⁾

나. 일제강점기

(1) 시나마치의 유래

부산에 있던 청국조계지는 「재조선청국조계지폐지협정」(1913년 3월)으로 폐지되어 청국의 특권도 사라졌으나 일본인들은 이곳 중국인 밀집지역을 시나마치라고 불렀다.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발발한 이후에 나타난 군벌정치를 비롯하여 농민에 대한 수탈 및 자연재해로 하여금 결국 중국인들이 조선으로 대거 이주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때는 주로 북한지역으로 이주하는 중국인들이 급증했다.⁴⁸⁾ 일제강점기에 화교의 인구분포가 기존 개

46) 安井三吉, 『帝國日本と華僑—日本, 台湾, 朝鮮』, 青木書店, 2009, p.134.

47) 이종우, 「한국화교의 현지화에 대한 연구-부산 거주 화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52-53.

48) 송승석, 「‘한국화교’ 연구의 현황과 미래」, 『중국현대문화』 제55호, 2010, pp.178-179.

항장 중심에서 지방 대도시, 그 다음에는 지방 중소도시로 확산되었다. 식민지 도시 부산은 일본인의 인구 비중이 여전히 전국 다른 도시보다 높았으며, 부산에서의 화교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⁴⁹⁾

(2) 일제강점기 부산 화교

(가) 부산 화교의 직업구조

일제강점기 한국 국내 화교의 전체적인 인구변화를 보면 192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의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그 수치가 193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화교들의 조선사회 정착을 보여준다. 1927년 당시 부산화교는 54.8%로서 일본인의 소유가옥을 임대하였고, 14.5%가 화교 자신의 토지와 가옥을 소유했으며, 나머지 10.5%는 남의 토지에 자신의 가옥을 짓고 살았다는 통계가 있다.⁵⁰⁾ 부산화교의 직업을 정리하면 아래<표 4>와 같다.

<표 4> 부산부 거류 중국인 직업별 호구표

직업별	호수	인구(명)	직업별	호수	인구(명)
포목점	19	131	토목공사	3	61
농업	15	27	시나 빵집	11	27
인력거꾼	—	1	중노동자	1	2
요리 음식점	23	84	총계	72	333

*참조: 朝鮮總督府庶務調査科(1924), p.139. 이 도표는 1923년 기준으로 부산 경찰서에서 작성한 표이다.

위의 <표 4>에 나타난 직업별 호구 통계를 직종별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의<표 5>와 같다.

49)안미정, 「부산화교의 이주를 통해 본 ‘전쟁’과 가족」 『石堂論叢』, 제50호, 2011, p.589.

50)김승, 「일제강점기 부산화교의 존재형태와 사회정치적 동향」, 제56회 전국역사학대회: 『역사속의 소수자』 발표문, 2013, p.825.

<표 5> 부산부 거류 중국인 직종 및 직업별 호구표

직업별		호수	총계(72)	인구	총 계 (333)
화상	음식점	23	53	84	242
	포목점	19		131	
	시나 빵집	11		27	
화농	농업	15	15	27	27
화공	토목공사	3	4	61	64
	중노동자	1		2	
	인력거꾼	-		1	
합계			72		333

<표 4>와 <표 5>에 나타나듯 1923년 말 조선총독부의 조사를 보면 72호 부산 화교 중에 화상 53호 242명(74%), 화농 15호 27명(20%), 화공 4호 64명(6%)이 포함되었다. 호수가 가장 많은 화상 중에 주요 직업은 여전히 음식점(총 72호 중의 23호)과 포목점(총 72호 중의 19호)이다. 이 통계에는 화공의 숫자가 4호 밖에 없다. 따라서 화공은 독신형·계절성 이동이라는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① 화상

화상의 직업은 음식점(23호)·포목점(19호)·시나 빵집(11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a. 음식점

음식점은 23호수 84명, 1호당 약 3~4명씩 인구로 추정된다. 부산의 시나 마치고 있는 화교들은 주로 산동성과 하북성 출신이었다. 그들은 부산의 각 지역에서 중국식당을 열었다. 중국식당은 가격이 저렴해서 손님 중에 중국인과 조선인 노동자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 손님도 증가하였다. 인천에서 자장면이 널리 팔리면서 중국요리의 대명사가 된 것과 대조하여 부산화교 음식점의 특징은 산동식 만두가 많은 것이었다. 그러나 중일전쟁

과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총독부가 식량배급정책을 실시하면서 음식업은 원료가 부족해지자 위기에 직면하였다.

b. 포목점

포목점은 19호수 131명, 1호당 약 7명씩 인구가 있었다. 1910년대 일본 방직공업의 발전에 따라 일본산 면포가 조선에 대량 수입되었다. 이로 인해 화교 상인의 판매했던 영국산 면포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화교 상인은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산 삼베와 비단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삼베는 비싸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때 대부분의 화교 상점은 직물뿐만 아니라 잡화를 함께 팔았으며, 비교적 수입이 높았던 직종이었다. 당시(1923년 기준) 납세액이 가장 많은 부산화교는 대부분 포목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대중(對中) 수출입품의 경우 조선의 수입품은 주로 직물과 잡화 및 일부 농산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화상에 의한 수출품은 대부분 해삼과 같은 해산물이었다. 1920년대 부산화교는 거의 대부분 초량동과 중앙동 일대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일본인 소유가옥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⁵¹⁾

1923년의 한 보고에 따르면, 화교상점은 포목점이 활발하여 도처에 있었는데 1930년대부터 화교의 상업이 쇠퇴하여 감소추세가 뚜렷해졌다. 그 원인은 조선총독부가 중국산 비단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고율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이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 가운데 직물 이외의 주목할 만한 상품은 소금이었다.

② 화농

인구비율은 15호수 27명, 평균 1호당 약 2명씩이다. 1920년대 화교사회에 선 농업이 중요한 직업으로(20%) 되어 있었다. 화교농업은 도시근교의 야채재배가 중심인데, 도시의 화교 식당에 야채를 공급하는 상품농작물적 성격을 함께 띠고 있었다. 초기에는 화교만을 위해 재배했으나 점차 조선인

51) 구지영, 「동아시아 해항도시의 이문화 공간 형성과 변동」 『石堂論叢』 제50호, 2011, p.613.

과 일본인에게도 판매하면서 급성장하였다. 얼마 후 화농은 조선의 야채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⁵²⁾ 농촌에 거주하는 화교는 거의 화농으로 볼 수 있다. 화농은 이 시기에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중일전쟁 발발 후 부산지역의 화농은 대거 귀국하였다. 당시에 필요한 채소는 대부분 일본 내지에서 공급받아야 했다. 부산의 경우도 1920년대부터 화교사회는 산동출신의 소상인 중심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졌는데, 음식점 (요리점, 음식점, 만두집, 호떡집 등)이 가장 많았다. 이 시기 부산의 화공과 화농의 증가현상은 다른 도시와 다르지 않았다.

③ 화공

토목공사에 종사했던 호수는 약 3호수이지만 인구 숫자는 총 61명이다. 즉 이것은 1호당 20명씩 인구 비율로 호당 인구 숫자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무엇 때문일까? 독신행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존 상인중심의 화교사회가 1920~1930년대에 농민과 노동자의 진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인구의 증가폭이 훨씬 높았는데 주로 조선으로 유입된 중국인 노동자였다. 화공은 대부분 계절에 따라 이동했으니까 호구 통계가 잘 잡히지 않았다. 부산화교협회에 보관되어 있는 신분증 83개를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부산화교의 입국연대는 1920년대와 1940년대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 아마도 1920년대의 군벌정치와 1940년대의 국공내전을 피해 산동지역 중국인들이 한반도로 대량 이주한 것이다.⁵³⁾ 중국인 노동자들의 대량 유입은 조선의 노동시장을 혼란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 노동자와의 갈등관계를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1920년대 초반부터 화공문제는 조선 노동자의 노동운동과 얽혀 나타났다.⁵⁴⁾

(나) 부산 화교 사회 변화

52)조세현, 앞 책, p.91.

53)안미정, 「부산 화교의 이주를 통해 본 '전쟁'과 가족」, 2011, p.595.

54)양필승, 「한국 화교의 어제, 오늘 및 내일」 『국제인권법』 3, 2000, p.149.

① 만보산사건

1920년대 중반부터 화교를 경멸하는 의식이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조선인 노동자들은 중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에 따라 저임금에 시달리자, 화공을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 1927년 인천·한성·전라도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화교배척폭동이 발생한 것은 그 한 사례이다. 이런 폭동이 서구인·일본인·조선인·중국인 순으로 민족서열을 정한 일본의 민족분열책에도 기인한다고 본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있던 중국영사관을 엄격히 관리·통제하고 있었고 조선 화교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1931년 만보산사건이 발생하면서 화교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사건은 만주에 있는 만보산 지역에서 조선농민과 중국인들 간에 발생한 사소한 충돌사건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사건을 확대 조작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화교를 배척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다수의 화교들이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다. 만보산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의 화교 배척운동은 일주일 사이에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일으켜 전례 없는 인구 유출 현상을 초래했다.⁵⁵⁾ 부산 화교배척폭동 중에 재부산청국영사관은 화교를 보호 수용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마산경찰청에 마산 거주 중국인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경남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중국 노동자 수가 적은 곳이라서 상대적으로 조선인과의 갈등이 적었다. 하지만 화교를 배척하는 분위기 때문에 적지 않는 중국인들이 모국으로 돌아갔다.⁵⁶⁾

이 사건으로 일본이 중국대륙을 침략하기 위해 조선인을 내세워 중국과 조선 사이를 이간질했다. 만보산사건 직후 일본은 만주사건을 일으켜 만주국을 수립하였다.

55)조세현, 앞 책, p.98.

56)이옥련, 앞 책.

<표 6> 1931년 경상남도 화교 출신지[籍貫]상황표

출신지	호수	남	여	계
산둥 (山東)	251	763	97	860
요녕 (遼寧)	13	37	7	44
하북 (河北)	15	53	10	63
하남 (河南)	1	1		1
호북 (湖北)	2	2	2	4
산서 (山西)	1	5		5
강소 (江蘇)	1	1	1	2
절강 (浙江)	2	7	1	8
복건 (福建)	1	12	5	17
합계	287	882	122	1,004

*참조: 楊昭全·孫玉梅(1991), 「外交部公報」 3卷10期, 1931年2月; 앞의 책, p.167 재 인용.

<표 6>에 나타나듯 경상남도 화교 중에 황하 이북, 즉 산둥·요녕·하북 출신지를 합하면 총 279호 967명으로 전체 호구의 97%를 차지한다. 그리하여 경상남도 화교 출신지 구성을 보면 황하 이북 출신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산둥성 출신 화교 호구가 251호 860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그리하여 1931년의 경상남도 조선거주의 화교 출신지 상황을 보면 경남지역 화교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산둥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황하 이남 출신지 상황을 보면 화교들은 6개 성에서 왔지만 8호 37명으로 전체 호구의 약 3%를 차지한다. 그 중에 복건성 출신자가 1호 17명으로 비교적 많다.

만보산사건 후인 1933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화교배척운동으로 위협을 피해 중국으로 귀국하면서 급속히 인구가 감소했다가 일부 회복된 상황을 보여준다. 1935년 화교에 대한 입경인구세제(入境人口稅制)가 실시되어 통제가 강화되면서 인구의 감소에 못지않게 대중국 무역이 침체기에 들어갔다. 곧이어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특히 화공의 수가 급감하였다.⁵⁷⁾

② 중일전쟁

조선이 식민지 치하에 있던 시기 중국대륙에서는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었다. 장개석의 북벌이 완료되어 새롭게 성립한 남경국민정부시기(1927~1937)에는 각국에 대사관과 영사관이 만들어졌다. 부산영사관은 일제의 철저한 감시 아래 있었다. 1933년 2월 한성에 국민당 조선지부가 설립되었다. 조선 내 국민당원은 크게 증가하다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탄압과 검거를 당했고 사실상 조직이 해체당했다.⁵⁸⁾ 적성국 국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본의 탄압을 우려해 많은 화교들이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⁵⁹⁾ 중일전쟁 기간 동안 화교들의 중국무역이 단절되면서 사실상 화교경제는 몰락하였다. 게다가 입국증명 관련 법률이 공포되어 전쟁 이전 중국으로 돌아갔던 화교는 재입국이 어려워졌다.⁶⁰⁾

중일전쟁 기간(1937~1945) 동안 해외 각지의 화교들은 본의 아니게 북경임시정부나 남경에 만들어진 왕정위(汪精衛) 정부(1940~1945)를 지지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였다. 1938년 1월 말 조선의 화교단체들은 대체로 북경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⁶¹⁾ 그 이유는 화교 대부분이 산둥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모른다.

1940년 3월 30일 남경에서 수립된 왕정위 정권은 일본이 중국을 대표하는 공식정부로 인정하면서 조선의 화교는 왕정위 정권으로 편입되었다. 왕정위 정부의 영사관은 화교의 지지를 받으며 적극적으로 화교를 보호하였다.

태평양전쟁 말기에 부산에서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중국인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한다.⁶²⁾ 일본인들은 화교를 적성국 국민으로 인식해서 부산의

57)조세현, 앞 책, p.101.

58)왕은미, 앞 책, p.89.

59)이옥련, 앞 책, p.211

60)안미정, 「부산 화교의 가족 분산과 국적의 함의」 『역사와 경계』, 제78호, 2011, p.8.

61)安井三吉, 『帝國日本と華僑—日本, 台湾, 朝鮮』, 青木書店, 2005, pp.80-93, p.251.

화교 경제는 빈사 상태에 빠졌는데, 일부 화교만이 남아 전쟁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제2절 부산 차이나타운의 변화

가. 청관거리에서 차이나타운으로

(1) 청관거리의 재건

1945년 무렵 일본의 패전 후 갑작스레 화교들은 전중국 국민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미군은 화교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었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며 귀환시켰다. 그들은 몰수대상이었던 적산의 처리 과정에서도 큰 이익을 얻었다. 일본의 패전 후 대일본 무역이 상대적으로 퇴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중무역은 급부상하였다.⁶²⁾ 화교들의 경제력이 중국 및 마카오·홍콩무역 등의 대외무역을 통해 일어섰다. 당시 중국은 실질적으로 남한이 거의 유일한 무역 상대국이었다. 화교경제는 무역회사를 중심으로 음식점과 잡화상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발달하였다. 특히 해방 후 3년간 화교상점의 급증은 그 속도가 과거 70년 이상을 초월했다. 그리고 대량의 달러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과 더불어 전후 화교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졌다.

1948년 8월 남한에 대한민국 신정부가 건국되면서 외국인 출입규제 정책이 실시되었다. 무역정책의 방향이 미군정하의 중화권 중심 무역에서 일본 중심 무역으로 전환되었다. 1949년 10월 중국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 수립된 사건은 한국 화교경제의 몰락을 알리는 전주곡이었

62)조세현, 앞 책, p.109.

63)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삼성경제연구소, 2004, pp.56-59.

다.⁶⁴⁾ 1948년 부산에 성립된 ‘부산화교자치구’는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자체 경찰권도 가지고 있었다.

화교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부산의 청관거리도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고 점포가 즐비하게 늘어섰다. 하지만 부산화교들 대부분이 국민당정부의 영사관을 통해 중화민국(中華民國)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중무역의 통로가 막히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⁶⁵⁾ 국공내전(國共內戰) 당시 적지 않은 중국인이 전란을 피해 한국으로 잠시 피난 왔다가 국교단절로 귀국하지 못했다. 그런데 해방 후인 1948년 무렵 부산화교 인구는 두 배가량 증가했다. 대한제국 시기부터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인적구성이 한 차례 바뀌었던 부산에서 해방 직후 또 한 번 인적구성이 바뀐 것이다.⁶⁶⁾ 이것은 식민지 시대 부산에 거주하던 소수의 화교 대신 새로운 이주민이 청관거리를 메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전쟁은 부산화교의 인적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사건이었다.⁶⁷⁾

<표 7> 해방이후 부산의 화교인구수

연도	전국(명)	부산(명)	구성비
1942년	82,661	230	0.2%
1948년	17,430	493	2.8%
1952년	17,925	4,182	23.3%
1954년	22,090	5,032	22.8%
1956년	22,090	4,019	18%
1957년	22,734	3,879	17%
1958년	-	3,632	-
1962년	23,575	3,705	15.7%
1967년	-	3,593	-

*참조: 조세현, 앞 책, p.119.

64) 양필승·이정희, 앞 책, pp.70-71.

65) 박경태, 앞 책, p.156.

66)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釜山市史』 제3권, 대원인쇄문화, 1991, p.1364.

67) 조세현, 앞 책, p.121.

해방이후 부산 화교인구의 변화에 대해 <표 7>을 참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942년 부산의 화교인구는 230명이었으며(전국 화교의 0.2%), 1948년엔 493명(전국 화교의 2.8%)이었다. 둘째, 1952년 한국전쟁(1950년~1953년) 당시 부산 거주 인구가 4,182명(전국 화교의 23.3%)으로 해방 이전보다 약 20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아마도 부산으로 피난 온 한국전쟁 피난민들 속에 화교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1954년에 5032명으로까지 증가하여 부산 거주 화교인구의 최대 규모가 아닐까 생각된다. 넷째, 최근(2007년) 부산 거주 화교 숫자는 2,345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표 7>에 의하면 해방이후 그리고 한국전쟁에 의한 부산 화교 거주·생활상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1956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한국전쟁 시기와 비교하면 약 반으로 축소되었다.

(2) 한국전쟁과 화교 피난민

(가) 한국전쟁 중의 화교

화교사회는 해방 직후 인구이동을 경험한 다음 한국전쟁 동안 또 한 차례 급격한 인구이동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전쟁은 화교경제의 중심지인 인천과 서울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인천 차이나타운에 큰 타격을 주었다.⁶⁸⁾ 이른바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가 북한을 도와 한국전쟁에 참전하자 남한의 화교들은 궁지에 몰렸다. 결국 1·4후퇴 때에는 다수의 화교가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왔다.

한국전쟁에 중공군이 참전하자 한국군과 미군은 통역의 필요에 따라 화교학교의 교원과 학생이 동원되었다. 중공군 포로에 대한 통역에도 화교들이 짧은 시간의 훈련을 거친 후 동원되었다. 화교들은 ‘중국수색대(中國搜查隊)’와 같은 전투부대를 만들어 전쟁에 참전했고, 국민당의 지원 아래 Seoul Chinese부대 (SC부대)와 같은 정보 부대로 참전했다. SC부대는 1952년 3월 부산에서 정식 설립되었는데 이때 참여한 한국화교는 약 500여

68)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삼성경제연구소. 2004, p.69.

명이었다고 한다.⁶⁹⁾ 한국정부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화교의 한국전쟁 참전을 인정하였다. 전쟁 막바지에 이르면서 한국화교의 반공입장은 분명해진다.

(나) 화교 피난민과 피난촌

한국전쟁 중 부산에는 전국 각지에서 피난 온 다수의 화교로 인해 인구가 폭증하였다. 한국정부가 부산으로 이전하자 중화민국대사관(中華民國大使館)도 부산으로 왔다. 부산에는 중일전쟁(1937년) 이전에 남경정부 영사관이 있었고, 태평양전쟁(1930년~1945년) 중에는 왕정위 정권의 영사관이 있었다. 전쟁 후에는 재정이 부족해 영사를 파견하지 못하고 영사관도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다.⁷⁰⁾ 봉래각(蓬萊閣) 음식점의 사장이 음식점의 일부 방을 대사관의 사무실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봉래각의 4~5층을 중화민국 주한대사관 부산임시판사처(釜山臨時辦事處)로 사용하도록 하고 1~3층은 음식점으로 정상 영업하였다. 전쟁 중 부산에서는 화교 피난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시자치구제도를 운영하였다. 화교자치구에서는 일부 화교들이 합법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관리했다. 자치구 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중화 요리점이던 봉래각이었다. 이곳은 전쟁 때 중화민국대사관으로 사용된 장소로 한때 청관거리 일대에 화교들을 결집시키던 상징이기도 하였다.

화교 피난민들은 부산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는데, 한국정부도 전시 중이라 이들을 돌볼 수 없었다. 중국대사관의 주요 업무는 바로 국제사업과 교민철수였다.⁷¹⁾ 화교가 화교를 돕는다는 취지아래 ‘중화민국 려한 전지재교구제위원회’(中華民國旅韓戰地災僑救濟委員會)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 단체는 부산으로 피난 온 화교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난촌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69) 왕은미, 「한반도 화교들의 한국전쟁」 『역사비평』 91, 2010, p.106.

70) 邵毓麟, 『使韓回憶錄-近代中韓關係史話』, 傳記文學出版社. 1980, p.191.

71) 邵毓麟, 앞 책. 1980, pp.192-193.

1950년 겨울 중공군이 참전해 한강을 다시 넘자 화교들이 남쪽으로 피난 와 부산에 모였다. 중국대사관 측은 한국정부와 중화민국대사관 임시판공처의 지원 아래 초량 청관거리 뒤쪽의 영주동에 위치한 화교상회 소유의 공동묘지 공간 약 1,300여 평에 신촌을 건설하여 화교 피난민들을 정착시키기로 했다.⁷²⁾ 신촌은 1,000여 세대의 화교피난민을 이주시키고 충효촌(忠孝村)이라고 명명했다. 건설자재는 주한미군 민정보도사령부가 무상으로 제공했고, 건설비용은 중국대륙 재교구제총회(中國大陸災僑救急總會)의 기부금과 재교구제위원회의 모금으로 이루어졌다. 전쟁 후에 재교구제위원회는 다시 충효촌 이외에도 황령산 방면에 거주하던 화교피난민들을 위해 거제리에 있던 한국인 소유 1,500여 평의 토지를 50년 장기임차 형식으로 빌려 인애촌(仁愛村)이라는 화교 집단 거주지를 마련하였다. 당시 거제도 난민 150여 명은 몇 년간 한국사회와 재교구제위원회의 도움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화교가 소유하고 있던 서면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의촌(信義村)이라는 화교촌도 형성되었다.

이처럼 부산에는 충효촌·인애촌·신의촌 모두 세 곳의 화교피난민 집단거주지가 존재하였다. 재교구제위원회가 화교 피난민들을 분산시킨 탓에 청관거리의 인구는 급증하지 않았지만, 전쟁 중에 청관거리는 전국 화교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한편 피난민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부산화교중학교가 성립되었다. 전쟁으로 서울의 화교중학교가 부산으로 옮겨오자 피난민 자녀들을 위해 옛 영사관을 교사로 삼아 개교한 것이다.⁷³⁾

한국전쟁이 끝나자 중화민국대사관과 화교의 주요 단체들이 서울로 옮겨갔다. 하지만 생활 기반을 잃은 화교를 중심으로 부산에 잔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전쟁은 화교의 광범위한 이동을 초래했으며, 그 와중에 부산화교사회도 전쟁과 내전 속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⁷⁴⁾

72) 華僑志編纂委員會, 앞 책, pp.140-142.

73) 조세현, 앞 책, pp.133-134.

74) 王恩美, 『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め韓國華僑—冷戰体制と‘祖國’意識』, 三元社,

(다) 차이나타운과 텍사스촌

한국전쟁으로 화교 재산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전쟁이 끝난 1954년 이후부터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다. 비록 부산으로 피난 왔던 화교들이 자신의 근거지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피난민이 잔류한 사실을 알 수 있다.⁷⁵⁾

전쟁 직후인 1954년 부산화교의 직업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다소 부정확한 통계이겠지만 적어도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중국음식점이 변함없이 주요 직종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부산의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밀무역이 성행했고 다른 도시에 비해 화교의 경제활동이 활발했다. 그러나 초량의 청관거리는 화교자본의 경제적 구심점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선박으로 유입된 물품이 통관을 거치는 세관이 중앙동에 있어, 당시 대형 무역상회가 모두 중앙동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녁에 화교들의 만나는 장소는 항상 청관거리였고, 각종 정보·인적교류가 모두 초량에서 이루어졌다. 주변 주민들은 대다수 화교가 청관거리에 산다고 착각했다.

1950년대 청관거리 풍경을 보면, 중국풍 건축양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중국대륙에서 쫓겨 오다시피 한 산둥성 출신의 가난한 화교였던 이들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힐 생각이나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도, 또 동화되지도 못했다.⁷⁶⁾ 1953년 11월 27일 중앙동에 있던 부산역이 대화재로 인해 없어지고, 경부선 기차역이 초량동 청관거리 맞은편으로 옮겨오면서 청관거리는 신흥 중심지로 떠올랐다. 그리고 청관거리 일대에 미군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와 점포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텍사스거리’라고 불리게 되었다. 미성년자와 한국인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클럽과 술집으로 다소 슬럼가의 양상을 띠기도 했지만, 외화가 흘러나

2008, p.158.

75) 華僑志編纂委員會, 앞 책, p.53.

76) 장세훈, 「‘부산 속의 아시아’, 부산 초량동 중화가의 사회생태적 연구」 『경제와 사회』, 2009년 봄호, p.318.

오는 환락가였던 탓에 호황을 누렸다.⁷⁷⁾

청관거리는 텍사스촌과 같은 외국인 거리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동반성장하다가 닉슨 미국 대통령의 괌 독트린 발표와 더불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경기가 크게 위축되었다. 그래도 부산항을 통한 국제무역이 증가와 미군함 부산방문도 증가함에 따라 외국선원과 미군함의 병사들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이 지역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인 전용점포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한국 국내외의 상황 변화로 중화거리와 외국인 상가가 동시에 침체기를 맞이했다.

나. 화교 생활상의 변화

(1) 전후 한국정부의 화교정책

1960년대 이후 한국정부의 화교차별정책은 유명하다. 부산화교에 큰 영향을 미친 두세 가지 사례를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8년 12월에 제정된 한국의 국적법은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한국인으로 규정하는 속인주의에 따랐다. 그리고 1960년대 초부터 18살에 달한 화교에게 외국인등록을 의무화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⁷⁸⁾ 이러한 까다로운 귀화정책으로 법적으로 외국인의 지위를 벗어나기 어렵고, 경제적인 차별대우 때문에 자유스럽게 직종을 선택할 수 없어 제약이 컸다.

둘째, 1962년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법’의 실시는 화교경제에 치명타를 가하였다.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제한되어 화교들은 몇 대째 살아온 집과 토지를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토지소유 제한법 때문에 당시 부산 화교들 가운데 부자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었다. 이를 피하려고

77)조세현, 앞 책, pp.139-140.

78)양필승·이정희, 앞 책, p.88.

한국인 명의를 빌리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비록 교육 분야에서는 화교사회의 자율적인 교육제도를 인정하였지만, 화교들이 고학력일지라도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중국음식점을 물려받는 일 말고는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셋째, 1973년 3월 5일 전국의 중국음식점에 내려진 ‘쌀밥판매 금지령’이다. 음식점에서는 쌀밥판매를 중국음식점에서만 금지했던 이 명령은 화교들의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다가 얼마 후 철회되었다.⁷⁹⁾ 1977년 한국정부가 실시한 부가가치세 정책은 화교들에게 큰 타격을 안겼다. 게다가 고급일식·양식·한식이 음식업계에 등장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화요리집이 증가하면서 화교들은 궁지에 몰렸다. 결국 1980년대부터 미국 등지에서 기술 이민을 개방하자 다수의 한국화교들이 외국으로 눈을 돌렸다.⁸⁰⁾

한국사회의 제약과 차별은 화교의 재이주를 초래하였다. 특히 부산의 경우 화교들 간의 세대갈등이나 텍사스촌의 쇠락으로 인하여 청관거리를 떠나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텍사스촌에 대해 1980년대 후반 내국인 출입규제가 해제되면서 외국인 전용 주점가로서의 텍사스촌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부유한 화교 층이 이민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으로 이주한 화교들은 대부분 음식업을 했으나, 국내에 남은 화교의 자녀들은 가능하면 전문직(한의사, 교사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그래서인지 부산화교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음식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육계와 의료계 종사자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한편 1970년대 중반 부산화교를 비롯해 화교의 대다수가 대만으로 옮겨가 집단 거주하며 보따리장사를 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으로 화교 무역상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중화민국, 즉 대만뿐이었다.⁸¹⁾

79) 박은경, 앞 책, p.291.

80) 于德豪·張次正, 「近代韓華移民史初探-從歷史進程及經濟活動着眼」 『嶺東學報』 第31期, 2012, p.114.

81) 양필승·이정희, 앞 책, pp.73-74.

(2) 한·중 수교 이후의 변화

1990년대 초반 한국이 러시아와 국교를 맺자 러시아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고 러시아선원과 보따리상들이 부산항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러시아어 간판이 걸리고 러시아인을 상대로 한 점포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다. 기존 화교의 해외이주와 러시아인의 진출로 청관거리가 해체 위기를 맞이한 듯 보였다. 한편 1990년 9월 인천-위해(威海)간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교류가 본격화 되었으며, 1992년 2월에는 한·중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드디어 1992년 8월 역사적인 한·중 국교수립이 맺어짐과 동시에 한국과 중화민국의 국교가 단절되었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 대륙에서 건너오는 중국인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92년 수교를 기준으로 화교 사회가 기존의 ‘구화교’와 ‘신화교’로 분리되었다. 1992년 이전에는 대만대사관이 한국화교들에게 대만여권을 발행해주었기 때문에, 구화교 24,000여 명 가운데 95% 이상이 대만여권을 가지고 있었다. 1992년 이후 한국에 온 신화교 수십만 명은 대부분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다.⁸²⁾ 이처럼 오늘날 한국 화교사회는 오래전부터 한국에 체류하던 대만국적의 중국인(구화교)과 새로운 중국국적의 중국인(신화교)으로 나누어졌다.

냉전체제에서 철저한 반공 이데올로기 영향을 받은 구화교들은 한·중 수교 초기 중국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의 국교단절은 부산화교의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왔다. 대만과의 단교에 따라 주부산 대만영사관도 폐쇄되었다. 하지만 비록 대사관은 아니지만 1994년 서울에 대만대표부가 개설되고, 2005년 대만대표부 부산판사처가 설립되어 한국과 대만 간 실질적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의 결과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향상되자 구화교 내부에서 원래 고향인 중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일어났다. 현

82) 于德豪·張次正, 앞 책, p.95.

재 부산의 중국영사관과 대만판사처는 정치적인 갈등은 덮어둔 채 부산화교를 매개로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른 한·중관계의 회복과 세계화는 화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화교에게 대륙의 문이 열린 것은 고향과의 연결이라는 정서를 넘어서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일부 사람들은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보따리 무역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해외 자본 유치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국내 화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세계화로 인해 외부 자본유치를 위한 국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몇 가지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다.⁸³⁾

1998년 6월 새롭게 시행된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의 토지소유와 관련된 제한 폐지와 더불어 화교들의 재산보유와 증식을 막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1997년에 개정된 국적법은 법에 규정된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출생 당시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한국인이면 그 자녀는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화교의 귀화를 어렵게 만든 까다로운 귀화조건도 완화되었다. 1998년 화교 체류 허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2002년에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영주권이 부여되는 F5 비자제도가 도입되었다. 2006년부터 선거법이 개정되어 영주권 취득 이후 3년 이상이 된 19살 이상의 한국 국내 거주 화교들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이 2002년 대일 수출을 누르고 2위에 올라섰다. 2003년, 대중 수출이 다시 대미 수출을 누르고 1위로 올라섰다. 이처럼 중국과의 무역이 급성장하면서 교류가 빈번해지자, 화교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개선되어 화교정책도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부산화교 현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⁸⁴⁾

한국의 화교협회는 각 도시에 총 52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도시는 전

83) 장수현, 「한화(韓華), 그 배제의 역사」 『당대비평』 제19집, 2004, pp.253-256.

84) 조세현, 앞 책, p.156.

문 인력과 전산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소도시는 협회장의 집이나 가게에서 손으로 직접 써서 호적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기록한다. 부산화교협회 기록에 따르면, 부산·경남 화교(부산·밀양·거제·김해·양산)의 인구현황은 2009년 6월 현재 총 가구 수는 920세대 3,642명이며, 부산 거주민 수는 2,345명이다. 화교협회가 관리하는 단체로는 부산화교소학교 부속유치원, 부산화교소학교, 부산화교 중고등학교, 명덕 화교신촌, 충효촌 등이 있다.⁸⁵⁾ 2007년 8월 현재 부산화교협회 호적부에 등록된 부산광역시 화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통적인 화교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와 동구의 화교가구 수가 가장 많은 편이다. 중국의 출신지별 분포를 보면 산둥성 출신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현재 부산화교의 출신지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출생한 화교가 대부분을 이룬다.⁸⁶⁾

화교 학교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교과 과정에는 한국어 교육시간이 부족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과목이 거의 없어 부산화교의 현지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화교학생의 대부분은 고등학교까지 화교학교를 다니지만 대학과정은 한국대학을 진학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1990년에는 화교학교도 교육부로부터 정식 학교로 인정되어 취업 등에서 받았던 불이익이 사라졌다. 최근에는 중국어를 배우는 열기가 고조되면서 한국학생들이 화교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산화교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를 두고 있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며 혼인관계를 통해 화교의 현지화는 상당히 진행되었다. 화교들이 여전히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고 대만국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이중국적을 소지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⁸⁷⁾

한 연구에 따르면, 화교 1세대는 한국에 정착하기보다는 돈을 벌어서 중

85) 김태만, 앞 책, pp.128-129.

86) 이종우, 「한국화교의 현지화에 대한 연구-부산 거주 화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55.

87) 이종우, 앞 책. pp.90-91.

국으로 귀향할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화교 배척에 순응하는 자세로 일관했고, 도저히 순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민을 떠났다. 화교 2세대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을 적어도 ‘절반의 고향’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화교 3세대는 자신이 한국에 사니까 한국사회에 대한 토착화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⁸⁸⁾

제3절 부산 차이나타운의 현황분석

가. 거리지도 분석

(1) 그림과 지도에서 본 부산 차이나타운

부산시는 1993년 8월 중국 상해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1998년 부산시에서는 상해거리를, 상해시에서는 부산거리를 조성하기로 합의하면서, 그해 8월 차이나타운을 ‘상해거리’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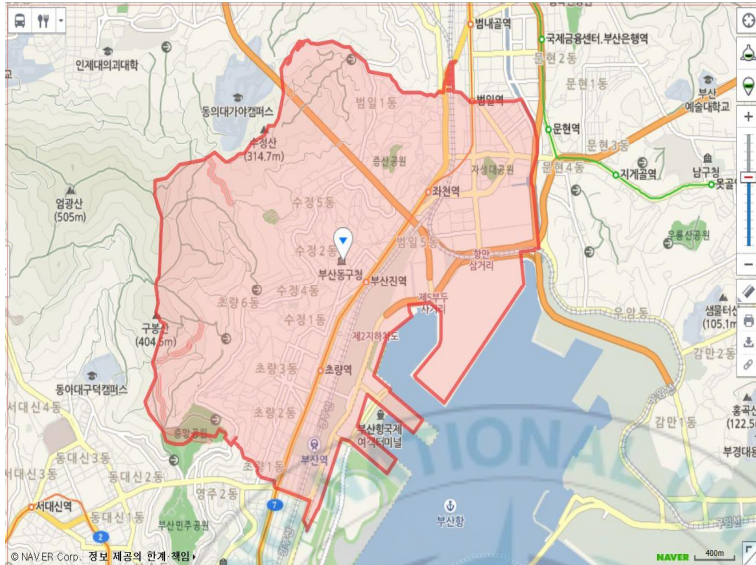
<그림 3> 부산 행정 구역 지도



*참조:<http://tour.busan.go.kr/>

88)장세훈, 앞 책, p.320.

<그림 4> 부산광역시 동구 지도



참조:<http://map.naver.com/index.nhn?query=67aA7IKwIOuPmeq1rA&enc=b64&tab>

초량 1동 사무소와 상해문 사이에 화교 집단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거리를 ‘상해거리’라고 부르며, 상해거리 동문과 은행길 국민은행 사이 거리(텍사스거리라고 불리던 곳)를 ‘외국인 상가길’이라고 부른다. 앞에 상해문이 있고 뒤에는 동화문이 있다. 왼쪽과 오른쪽에 상해거리의 서문과 동문이 있다. 중앙상징물 밑에 패왕별희의 동상이 세워 있다.

<그림 5> 차이나타운 위치도



참조: 이광국, 「국가 전략적 특화공간으로서 부산 차이나타운의 기능 부여에 관한 연구-법정계획을 중심으로」, 大韓建築學會論文集(2013년)을 참조하여 만들었음.

西門

★ : 代表中国店舗

C

김카피&옷집
세중 환전소
엑스포 무역
★ 千里香燒烤店
맥주집
선성상화(잡화)
ABC통신/환전소
★一品香 (만두 전문점)

China Vill
★
(원룸/투룸 임대)

노래방

長春芳
★

Sonya Cafe

상

해

A

JMC
(BU GAEG LU)
원룸 임대

樂天閣 (락천각) ★
串串串 火鍋燒烤 ★
上海뷰티 마사지 ★
長春香 ★
佳人 노래주점 ★
화장품&향수
中南海 ★
中國傳統按摩 ★
長盛香 ★
오페라 유흥주점
kiki 커피

나경아
★
Dream Company

다영도239번길
조명1층 주민센터

東門

D

주거용
★藥材
★滬廬坊
★FILIPINO
환전소
한진&전자
라이아 신발점

하

리

B

三國志壁畫(삼국지 벽)
(華僑中學校) 화교 중학교 ★
華僑幼兒園(화교 유치원) ★
(주)뉴월드 두어
Coffee

東門

上 해 거 리 (중앙상징물)

하 리 거 (대영로 243번길)

韓城우이 ★
Model
Coffee shopRestaurant
88中國食品店 ★
7-11 편의점

하

리

鴻慶坊 (중화요리점)
러시아 음식점
태강의원
잘 옷집
내가본 사진관광 상품
World 환전\휴대폰
乾一行 중화요리 재료 도/소재 ★
中國傳統按摩 ★
EL Café
러시아식 팬케익
上海灘(상해단) ★
정일당 한의원
복심장
祥和百貨&換錢所 ★
World Telephone

- 42 -

분으로 나뉘어서 그렸다. 각 부분의 상점 수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부산 차이나타운의 구역별 상점 통계

구역	상점 수	중국	러시아	한국
A	24	11	7	6
B	21	11	5	6
C	28	7	11	10
D	30	10	9	10
총계	103	39	32	32

<표 8>에 의하면 A·B·C·D 네 구역의 총 상점 수는 103개, 그 중에 A 구역 24개, B구역 21개, C구역 28개, D구역 30개로서 D구역의 상점수가 가장 많다. 국가별 분포를 보면, A~D구역까지에 중국, 러시아, 한국 상점들이 모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A, B, D구역에서 중국 상점, C구역에 러시아 상점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총 103개 상점 중에 국적별 상점 숫자를 보면 중국 39개, 러시아 32개, 한국 32개로서, 이웃한 텍사스촌을 고려한다면 부산차이나타운은 중국인만의 거리가 아니라 완전한 국제거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점의 영업종류에 의거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부산 차이나타운 종류별 현황표

국적별	총계		소계	종류별	소계
중국	39	시설	3	화교유치원	1
				화교초등학교	1
				화교중학교	1
		상점	36	음식가게	20
				마사지	5
				잡화가게	5
				노래주점	3
				환전소	2
				여행사	1
러시아	32	시설			

		상점	32	음식점	6
				전자 통신	7
				옷·신발 점	6
				노래 주점	4
				화장품 점	3
				커피숍	3
				환전소	2
				무역점	1
한국		시설	3	외국인 관광안내소	1
				초량근대역사갤러리	1
				초량 1동 주민 센터	1
		상점	29	노래 주점	4
				사진관	3
				음식점	3
				부동산	3
				한의원	2
				편의점	2
				커피숍	2
				환전소	2
				옷·신발 가게	2
				잡화점	1
				여행사	1
				안경 가게	1
				세탁소	1
				Motel	1
				빵 집	1
총계	103		103	103	

위의 <표 9>에 의하면, 부산 차이나타운은 상점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화교들 자녀 교육기관인 학교시설(3), 외국인 관광안내소(1), 초량근대역사갤러리(1), 초량1동 주민센터 등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 상점 36개, 러시아 상점 32개, 한국 상점 29개를 포함한다.

비중이 제일 많은 중국 음식점은 모두 20개로서 중국계 상점(39개)의 약 50%를 차지하며 차이나타운 전체 상점의 약 20%를 차지한다.

러시아 가게 중에는 음식점·주점·의류점·전자 통신점 등 여러 가지 종류

가 있다. 부산 차이나타운은 외국인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전통적인 ‘중화 거리’의 이미지와 달라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다양한 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 차이나타운에서 각 종류의 상점은 융합하고 공존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통신사·부동산 등 상점들이 중국인과 러시아인을 향해 서비스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업무도 포함한다.

한편 A·B·C·D 네 구역의 상점 수를 보면 각각 30~40개로서 평균적인 분포를 찾아볼 수 있다. 거리 지도를 보면 상해문과 동화문 사이의 상점이 적고 차이나타운 동문과 서문 사이의 상점이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연구를 참고하면, 부산 차이나타운의 경우 전통적인 중화 요리점 이외의 다른 업종의 상점의 변화가 빈번하다. 필자가 거리지도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개업 준비 중의 상점이나 장기간 휴업하는 상점 등이 있었다.

<표 10>상해거리 현황표

(2007년 8월 현재)

식당	소계	27
	한식	6
	분식	3
	중식	13
	레스토랑	5
주류	소계	29
	외국주점	7
	간이주점	22
의류		15
신발		4
가방		3
가전		25
슈퍼		4
기타		37

참조: 이종우, 앞 책, p.55 표 참조;

조세현, 앞 책 p.163 재인용.

<표 11>상해거리 현황표

(2017년 9월 현재)

식당	소계	30
	한식·분식	3
	중식	21
	레스토랑	6
주류	소계	11
	외국주점	7
	간이주점	4
잡화	의류·신발·가방	8
가전	7	
슈퍼	9	
기타	38	

참조: 필자 작성(2017년 9월)

<표 10>은 2007년도 상해거리 통계표이고 <표 11>과 비교해 보면 10년

동안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통계 방식과 치중하는 것이 달라서 일정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차이나타운의 특징을 알 수 있다. 2007년 식당은 총 27개 중에 중식 13개, 한식 6개, 일식 3개, 레스토랑 5개를 포함하고 있다.

2017년까지 식당 모두 30개 중에 중식 21개, 한식 3개, 양식 6개, 일식은 없다. 중식 식당이 늘어나고, 한국 식당의 감소와 일식 식당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 주점은 변동이 없으나 간이 주점의 숫자가 대폭적으로 감소했으며, 그리고 잡화점(의류·신발·가방)과 가전가게가 1/3 정도로 축소된 반면에 슈퍼가 2배 이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나. 인터뷰사례 분석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 차이나타운 내 중국인 관련기관·상점(총 103개)중, 화교학교(2개), 중국음식점(2개), 잡화점(1개), 화교협회(1개) 등 6개 시설을 방문·설문·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터뷰사례

(가) 홍성방(鴻盛坊)

상해거리에는 홍성방이라는 식당이 두 개가 있고, 전자는 중앙 상징물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후자는 상해문 부근에 있다. 필자는 전자의 경영자인 동통락(董統樂)씨에게 인터뷰를 했다. 동통락씨는 부산 소·중·고등학교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그는 2세대 화교 출신으로 아버지는 중국 산둥(山東)성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1971년부터 홍성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후자의 홍성방은 상해문 근처에 있는데 현재 동생이 운영하고 있다. 부인은 대만 국적의 화교이다. 아들 두 명이 있고 큰아들은 현재 호주에 살고 있으며, 막내아들은 한국 대학을 졸업하여 현재 외식업을 전공하고 있으며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 온 가족은 모두 부산 화교 소·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중국인으로서의 의식이 강하다. 대륙과 대만을 자주 오가며 친척 방문을 하고 있다. 식당을 찾는 손님 중 한국인이 많아 인근 직장인들이 회식 장소로 많이 찾아오고, 식당 종업원 대다수는 중국인 근로자들이다. 식당 운영 과정에서 정책의 변동에 영향을 받은 바 있었으나, 현재는 경영이 양호하다.

(나) 장춘방(長春芳)

장춘방은 상해문과 서문 사이에 위치한다. 현재 경영자는 대만의 3세대 화교이다. 조부대부터 경영을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중국 산둥(山東)성 출신으로 대만 국적을 갖고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다. 이 식당은 3대를 거쳐 지금까지 43년이란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여러 차례 대만 관광을 다녔지만 대륙에 간 적도 없고, 산둥성에 있는 본가나 친척도 방문하러 가지 않았다. 화교 소·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했다. 부인은 한국인이고 자녀는 현재 한국의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따라 대만 국적을 취득했지만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른다. 그는 그의 자녀와 같은 화교 4세대 대부분이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젖어든 상태에서 한국 학교를 다니며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한국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중국어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중국어 공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그는 ‘자신이 지구인’이라는 사실을 농담으로 던졌다. 그에게는 국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삶의 행복이었다. 삼대가 이 식당을 운영해 온 터라 단골손님들도 조손 삼대가 찾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 88식품 잡화점(88中國食品店)

필자는 상해문 부근의 한 식품 잡화점에서 취재했다. 원래 중국의 특산품이나 식품 원료·술 등을 취급하는 이 상점은 최근 중국 음식점을 겸업하

게 되었다. 경영자는 중국 동북 지역에서 온 부부이다.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그들은 자기가 중국인으로 동북 지방에서 왔으며, ‘화교’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의 생각에 화교란 대만 국적 소지자만을 뜻하는 것 같다. 부부는 10년 전 부산을 찾아 이곳에 정착했고, 2013년부터 식료품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부산 지역 화교, 중국에서 온 유학생·노동자·중식을 운영하는 한국인을 대상이다.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한국인 유치원에 보내고 집에서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친다. 한국에서 살면 이곳의 언어문화를 이해해야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뿌리는 중국에 있으니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라고 이야기했다.

(라) 부산 화교협회(釜山華僑協會) 직원

업무 범위는 우리는 중국 산둥성 출신이고, 3세대 화교로서, 부산화교협회는 주민센터와 비슷하다. 초량1동 주민센터가 한국인의 호적을 관리하고 있듯이, 우리는 대만 국적의 화교 호적을 관리한다.

조직 활동은 정기적인 화교 축제·국경일 이외에 화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있으며, 대부분 직종별로 구분된다.

나의 두 아이는 현재 대만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들은 한국에서 태어났다. 나는 출신이 산둥성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어머니 세대만의 향토 의식이 비교적 강하다. 한·중 수교 이전, 내 기억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일단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그 다음에 일본에서 산둥까지의 비행기를 탑승해야 되었다.

할아버지·할머니들이 해준 홍위병 이야기는 매우 무서웠다. 수교 이후, 처음으로 산둥성에 갔을 때 배를 내려 중국 군인들을 만났을 때 매우 위험했고 두려웠다. 내가 산둥성이나 한국·대만 등에 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중국·대만·한국 중에 어디가 좋냐고 물어오곤 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출신지는 산둥성이고, 국적은 대만 국적이며, 성장 환경은 한국이므로 어디가 좋다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한국에 익숙해져 있으며 한

국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1950~60년대 중국식당이 인기가 매우 높아 식당을 운영하는 화교들의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그 때 한국에서 투자와 발전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았으므로 미국으로 이민을 간 화교가 많았다. 이들 화교들은 나이가 많아 고향으로 가거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요즘 젊은 화교들이 한국인과 많이 접촉하고, 연애하고 결혼한 뒤 차이나타운에 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져 화교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사용하므로 한국 학교는 그들한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다. 또 한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한국의 입학시험을 거쳐야 하고, 화교 학교에는 입학시험과 관련 공부를 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려면 한국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마) 화교 초등학교(釜山華僑小學) 교직원 인터뷰

‘우리 학교는 현재 중국대륙과 대만, 한국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으며, 외국 학생이 입학하려면 해외에서 3년 이상 생활하는 등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과목을 중국어로 가르치고 있지만 학생들이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한국어 쓰기에 익숙하다. 교과서는 모두 대만이 지정한 것으로 한국 역사·문화에 관한 공부는 없다. 3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4학년 때 한국어 공부를, 5학년 때 한어 병음 공부를 시작했다. 5·6학년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 일반 학생들은 모두 화교 유치원에서 나왔고,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대부분 화교 중학교에 진학했다.’

(바) 부산 화교 중·고등학교(釜山華僑中學) 교사 인터뷰 상황

필자가 처음으로 화교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간단한 질문을 던졌을 때 교장 선생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방문을 하러 갔을 때 교장이 업무차 외출이라고 말했다. 한 명의 선생님께 인터뷰에 응해

주실 것을 부탁하자, 그는 매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자기는 중국 산둥 출신이지만 지금은 대만 국적이다. 한국전쟁 때 그들은 한국에서 대만 정부와 한국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았다. 고향의 전란과 빈곤은 그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난 원인이었다. 그래서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중국대륙에 대한 일종의 악감정이 있었다. 필자가 지금 학교 상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부탁할 때 이 선생님은 중국대륙에서 온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무엇을 겪어왔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매우 표면적으로 대답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젊은 시절에는 한국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혐오감이 강하여 화교 경제뿐 아니라 화교 생활에도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때는 집 밖에서 중국어로 말하는 것을 피해야 했으며 지금 중·한 양국의 우호적인 왕래와 중국 경제의 발전에 따라 한국이 중국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마침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교장이 외출에서 돌아왔다. 필자는 신분을 밝히고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나의 신분과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다. 일이 바빠서 인터뷰도 할 수 없으며 다른 시간에 와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항상 각종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화교 중·고등학교에서 대화를 잘 나눌 수 없지만 40~50대 화교 중 일부는 대륙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인터뷰 분석

부산 차이나타운에는 학교·공공시설·잡화점·중국집 등이 복잡하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인터뷰가 어려웠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득한 인터뷰사례를 통해 아래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다수 화교들은 화교의 개념에 명확한 구분이 없다. 법적으로는 1992년 수교 이전에 대만 여권을 가진 화교는 구화교라고 불리고 수교 이후 대륙 여권을 가진 화교는 신화교라고 불린다. 신·구화교의 관리 시스템

은 다르다. 부산화교화인협회는 구화교에 대해 출입국·여권·명절 축제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대륙 및 대만 출신 유학생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둘째, 구화교과 신화교가 차이나타운에 함께 장사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중국 식당은 구화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신식 중국식당, 예를 들어 중국식 불고기·샤브샤브·마라탕·중국지방 음식점 등은 대부분 신화교에 의해 경영되고 있다. 오래 된 구화교 상점은 몇 세대에 걸친 현지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많은 한국인 고객과 경영자들이 친구와 같은 관계를 맺어 대대손손 우호적으로 지내고 있다. 신화교의 상점은 시간이 짧지만 운영 방식이 다양하며, 고객은 주로 대륙에서 온 노동자·유학생·혹은 관광객 등이다. 고객의 유동성이 크다.

셋째, 한국전쟁 이후 한국 국내 반공풍조와 한국 정부의 규제에 의해 화교들은 힘든 세월을 겪었고, 화교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대륙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으며,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지금은 중국 대륙 경제가 발전하면서 화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구화교들은 고향·한국·국적의 질문에 매우 난감해 했다. 자주 중국 대륙 고향에 가서 친척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한두 번만 가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대륙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었다. 대만 여권을 갖고 있지만 대만은 여행하는 곳이고 그들에게는 생활 기반이 있는 부산이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넷째, 차이나타운에는 화교유치원·화교 중·고등학교가 있다. 화교들은 화교 학교나 한국인 학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교 교육 경력은 다양하다. 일부 화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업인 식당을 운영하거나 일부는 졸업 후 한국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거나 외국으로 나가 공부한다. 또 지리적 이유를 고려해 자녀들을 집과 가까운 한국인 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많

다.

화교의 배우자 경우를 보면, 구화교들은 한국에 온지 오래돼서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님 중에 한 사람은 한국인이고 자녀를 한국인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신화교의 경우는 부부가 함께 한국에 와서 일을 하거나, 혼자서 한국에 와서 같은 화교 신분의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가족들은 자녀를 한국 사회에 잘 적응시키기 위해 자녀들을 한국인 학교에 보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화교 학교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제Ⅲ장 나가사키 속의 차이나타운

제1절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의 성립

나가사키 현은 동경 129° 52'48", 북위 32° 44'49"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는 약 143만 명이다. 동쪽으로 사가현(佐賀縣)과 인접하여 주위를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쓰시마·이키·고토 열도 등의 도서가 971개나 있고 그 수는 일본 제일이다. 면적은 홋카이도의 약 20분의 1이지만 현에 섬이 매우 많고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이 복잡하며 해안선이 길다. 이 지형적 특징으로 나가사키 현 전역에 83개의 항구가 있어 그 수는 국내 7.4%에 이른다. 또한, 나가사키 현 내에는 해안선으로부터 거리가 15km이상 되는 곳이 없다. 나가사키 현은 일본의 대외 교류와 국제 무역의 항구 도시다.

<그림 7> 규슈 속의 나가사키 현



참조: yahoo. japan

가. 에도시대 도진야시키(唐人屋敷)

(1) 나가사키 화교 사회의 시작

나가사키 화교 역사의 뿌리는 에도시대에 형성됐다. 약 1540년경 왕직(王直)라는 중국 해적 상인이 히라도(平戸)에 거점을 만들어 마쓰우라 다카노부(松浦隆信)의 보호를 받았다. 폭풍으로 포르투갈인의 중국 선박이 일본 다네가 섬에 정박하게 되었으며, 1550년 왕직이 다시 포르투갈인을 이끌고 히라도에 와서 마쓰우라 다카노부에게 소개했다. 그러나 이때 중·일 간 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대규모 무역은 1560년 중국이 왜구를 평정한 이후였다.⁸⁹⁾ 해금정책의 약화에 따라 중국 상선은 해마다 증가하여 일본 각 항에 자유롭게 정박할 수 있고 제한 없이 일본 각 지역에 화물을 매매할 수 있었다. 다만 항해상 문제와 지리적 편의를 위해 중국 상선 대다수는 일본 남부 항구인 나가사키에 정박하고 상업 활동을 전개하였다.⁹⁰⁾

중·일 민간 무역 규모의 확대는 중국 해금정책의 약화 때문만이 아니라 일본 국내 정치적 불안에 있었다. 일본 내전으로 인해 규슈(九州)의 다이묘(大名)들은 중앙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의 무기를 얻을 수 있도록 포르투갈 사람들과 무역 관계를 맺기를 희망하였다. 1550년~1564년 히라도 다이묘 마쓰우라 다카노부와 나가사키 다이묘 오무라 스미타다(大村忠純)가 포르투갈과의 교역에서 공개적인 경쟁 관계가 되었다. 마침내 나가사키 다이묘의 오무라 스미타다가 승리하여 포르투갈 사람들을 그의 영지로 인도하여 모테기(茂木)·요코제우라(横瀬浦)·후쿠다(福田)의 세 거점을 제공하였다. 1571년 나가사키 개항 이후 오무라 스미타다는 포르투갈 사람들의 나가사키 거주를 허용하여 중국 선박도 같은 시기에 나가사키에 상륙

89)菅原幸助, 『日本の華僑』, 朝日文庫, 1991.

90)羅晃潮, 「日本長崎華僑史淺探」, 『華僑華人歷史研究』, 1987(3), pp.27-32.

하여 상품 수입이 시작하였다.⁹¹⁾

1571년 나가사키 개항 이후 해상 무역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나가사키는 새로 행정 구역을 나누어 6개 행정 구역 중에 우치마치(内町)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몇 년간 유럽인들의 무역 역조가 심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마카오에서 온 포르투갈인들은 일 년에 한 번씩 나가사키 항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은 당시 해상 무역에서 반사 이익을 얻는 주요 통로였다.

16~17세기 일본에 진출한 중국 상인들과 모험가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게다가 중국 상인들은 나가사키 시내에 거주지 규제가 없어서 그들 중의 일부는 일본 여성과 동거하거나 결혼하였다. 이것은 화교들의 일본 사회 융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또 이 시기의 중국 선박들은 작고 민첩하여 항로와 계절풍, 기후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엔 무역 규제가 적어 중국 상선들이 빈번하게 나가사키에 출입했었다. 수년 후 중국 상인에게 창고를 임대해 주는 일본인들이 점차 중간 상인화되면서 중국 상품 수요도 해마다 상승하고 있었다. 중·일 무역 확대는 중·일 상인들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였고, 이는 향후 나가사키 화교 사회성립의 기초가 되었다.⁹²⁾

(2) 도진야시키의 성립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에 일본 정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장악되었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이 다이쇼군(征夷大將軍)으로 임명되어 막부를 개창하였다.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치한 260년 동안을 에도시대라고 부른다.

도쿠가와 막부 초기, 중·일 무역 선박의 목적지는 사쓰마(薩摩)이었다. 1607년에 천주(泉州)의 상선이 이곳을 방문, 그 후에 수많은 명나라 유민도 사쓰마로 도망쳤다. 17세기 초 나가사키에 유입된 중국 상인들은 주로 임

91) 肖斌, 「日本長崎華僑社會的形成与特征(1571~1641年)」, 『八桂月刊』, 2009(3).

92) 過放·喬云, 「初期日本華僑社會」, 『南洋資料譯叢』, 2004(4), pp.70-80.

시 거처로 거래를 마치고 일본을 떠났다. 이후 화교들이 점차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10여 년만에 화교 인구수가 20여 명에서 2, 3천여 명으로 급증했다. 1616년부터 제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실권 장악 이후, 일본의 중요한 국제 무역항인 나가사키와 히라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히라도는 처음 네덜란드와 영국에 개방된 항구였고, 나가사키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개방된 항구였는데, 두 항구에는 화교 단체가 있었다. 1617년 사쓰마 영주 시마즈 이에히사(島津家久)는 막부의 명령을 받들어 명나라 선박에게 일률적으로 나가사키로 가서 정박해야 하며 사쓰마에 머물 수 없다고 말했다.⁹³⁾

1635년 도쿠가와 막부는 중국 선박이 나가사키에 기항할 수밖에 없다고 규제했다. 그 목적은 기타규슈에 있는 중국 정착민들을 나가사키로 집결시키는 것이었다. 또 1635년부터 중국인은 일본인과 결혼하거나 혼거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일본에 거주하는 화교에 대해 영주증이 아니고 임시 거주증만 발급하였다. 이런 매우 엄격한 금령은 정치적 원인으로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도망쳐 오는 것을 저지하려는 목적이었다.

에도 막부의 쇄국령 발표로 인해 1641년에, 중국·네덜란드 선박 이외의 외국 선박의 도래를 금지하게 되자 나가사키가 유일한 국제 무역항이 되었다. 그리스도교 탄압으로 인해 삼강(三江), 복건(福建), 광둥(廣東)에서 온 중국인은 스스로 기독교도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 출신지별로 마조(媽祖)를 모시는 사원을 세웠다. 그들은 4개의 절을 중심으로 같은 출신자를 상호 부조하는 조직인 ‘방(幫)’을 형성했다. 현존하는 유일한 방인 미야마 공방(三山公幫)의 시초인 복주방(福州幫)은 1629년에 창설되어 일본에서의 상부상조 생활과 동향 연대 의식을 강화하여 왔다.⁹⁴⁾ 1620년 고후쿠지(興

93) 童家洲, 「明末清初日本長崎福建籍華僑述略」 『福建師範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1990(4), pp.115-121.

94) 王維, 『日本華僑における伝統の再編とエスニシティー祭祀と芸能を中心に』, 風響社, 2001.

福寺), 1628년 후쿠자이지(福濟寺), 1629년 소후쿠지(崇福寺), 1677년 쇼후쿠지(聖福寺)가 창건되어 당사절(唐四寺)이나 사복절(四福寺)이라고 불리는 종교시설이 만들어졌다.⁹⁵⁾

1670년대에 이르러서는 나가사키의 전체인구 약 6만 명의 6분 1인 약 1만 명이 중국인이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무역 제한이 해제되어 일본과 교류하고자 나가사키로 오는 중국 선박의 수가 급증하였지만, 일본에서는 무역 통제령이 내려져 무역허가를 받지 못해 수많은 중국 선박이 허무하게 돌아가야만 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통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밀무역이 증가하게 되었다.

도진야시기는 이러한 밀무역을 단속하고, 무역을 철저히 통제할 목적으로 중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지게 되었다. 1688년에 건설하기 시작하여 이듬해인 1689년 4월에 중국(당) 상인들의 거주공간, 즉 도진야시키(唐人屋敷)가 성립되었다.

도진야시기는 중국인들의 거주지로, 약 179년(1689년~1868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길이 205m, 폭 약 140m로서 약 6,800평(후에 약 9,400평으로 확장)의 크기였다. 또한, 주변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테지마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밖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없었다. 다섯 곳의 경비초소가 설치되어 있는 등 엄중한 감시 하에 관리되었다. 도진야시키에는 중국의 선원들과 상인들이 수용되었고 기와를 얹은 연립주택 형식의 2층 건물이 20채 있었으며, 일본인은 기녀와 지역관리만이 드나들 수 있었다. ‘다이몬(大門)’에 들어서면, 오토나(乙名: 거주지를 감시하는 관리)와 통역사의 대기소가 있었다. 또한, 광장에서는 허가를 받은 나가사키 상인들이 야채·생선·생활용품 등을 판매하였다. 광장을 지나 ‘니노몬(二の門)’으로 들어가면 중국인 거주지역으로서 나가사키의 관리도 출입이 제한되었다. 중국인은 ‘혼베야(本部屋)’ 건물에 살았으며, 배의 단위에 따라 방을 배정받았다. 2층은 선

95) 羅晃潮, 「試論日本華僑同鄉會館的演變」 『學術研究』, 1987(1), pp.71-75.

주와 상급 선원들이, 1층에는 하급 선원들이 사용하였다.

건물은 일본식 건물이었다. 하지만 1784년의 화재로 소실되어, 새 건물을 짓게 되면서 중국인들이 직접 중국식으로 만든 ‘지본다테(自分立)’라 불리는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붉은 격자문과 병풍 등으로 장식된 중국풍의 마을로 변화하게 되었다. 종교적인 시설로 토신당과 관음당·천후당이 있었으며,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시텐(市店)’이라 불리는 상점도 만들어졌다. 전성기에는 107개의 상점이 있었으며, 술과 차, 과자 등을 판매하였다.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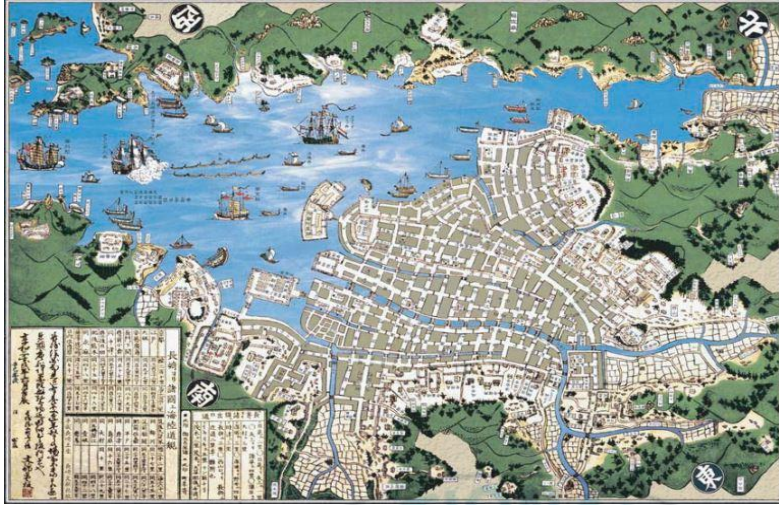
중국인의 자유로운 거주가 법률적으로 허가된 것은 1871년의 청일 수호조약이 체결된 후의 일이었다. 또한, 안세이(安政)시대의 개국과 함께 도진야시키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중국인의 대부분은 신지(新地)와 오우라의 외국인 거류지에 거주하게 되었다.

1698년 화재로 고도마치(五島町)와 다이고쿠마치(大黒町)에 있던 중국 선박의 하물 창고가 불타 버린 탓에 창고가 한 눈에 보이도록 도진야시키 전면의 바다를 매립하여 중국 선박 전용의 창고 구역을 조성했다. 이 지역을 신지라고 불렀다. 1784년의 대화재에서 도진야시키 전체가 관제당(關帝堂)만 남기고 모두 소각되자, 중국인이 자체적으로 건축하는 것이 인정됐다. 1854년 개국에 의해서 도진야시키가 폐지되자 그 후에 중국인들은 인접하는 도진야시키의 창고였던 신지마치(新地町)에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오늘날의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이 되었다.⁹⁷⁾

96) 神代祇彦(1966), 『長崎異國風土記』, 藤木博英社.

97) 山本紀綱(1983), 『長崎唐人屋敷』, 謙光社.

<그림 8> 히젠국(肥州) 나가사키 지도



*참조: 분킨도(文錦堂) 발간, 1802년, (1장 지본색인 68.0cm×47.0cm), (주) 나가사키 문헌사 소장

에도시대에는 목판화로 인쇄된 나가사키의 지도가 기념품용으로 많이 판매되었다. <그림 8>은 에도시대 후기인 1802년경의 지도로, 메이지유신이 일어나기 66년 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왼쪽 구석에 적힌 남쪽이라는 글자 윗부분이 이곳 ‘도진야시키’이다. 도진야시키는 1689년에 중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해안에는 부채꼴 모양의 데지마(出島)와 정사각형의 신지 창고가 보인다. 신지 창고(新地荷藏)는 도진야시키(唐人屋敷)의 집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702년에 만들어졌다.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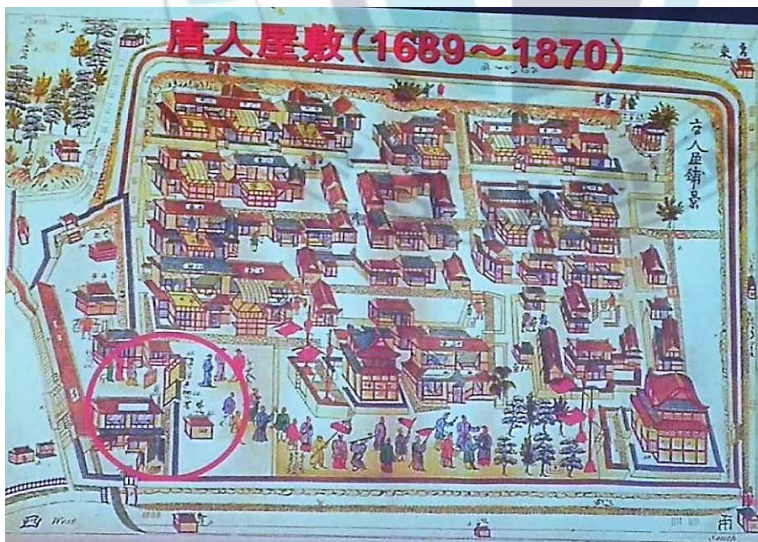
98) 内田直作(1949), 『日本華僑社會の研究』, 同文館.

<그림 9> 나가사키항 부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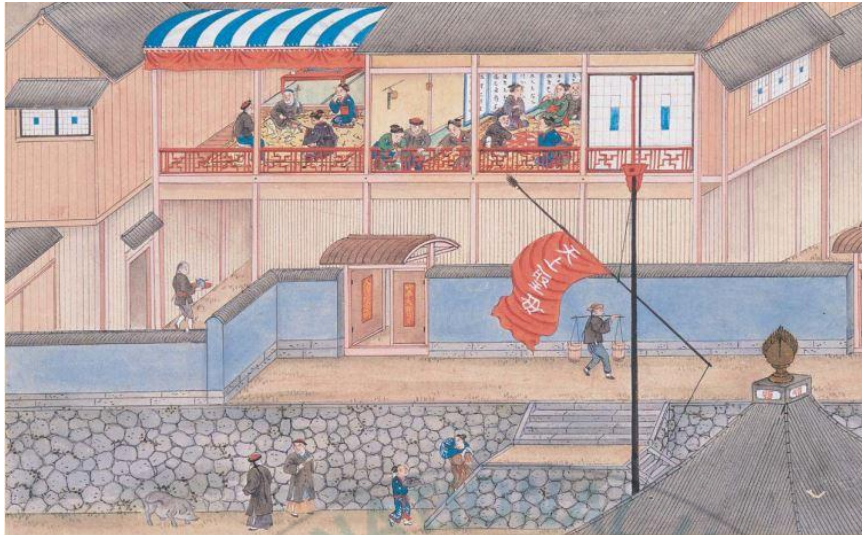
(3) 도진야시키의 생활상

<그림 10> 도진야시키 지도



참조: 도진야시키 에도후기 富島屋版, 國立歷史民俗博物館

<그림 11>도진야시키 기생유흥도



*참조: (‘도진야시키 두루마리 그림’의 일부), 가와하라 케이이 작품, 에도시대 후기(19세기), (1권 지본착색 22.8cm ×36.0cm)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그림 12> 나가사키 판화·도진야시키 기생유흥도 세부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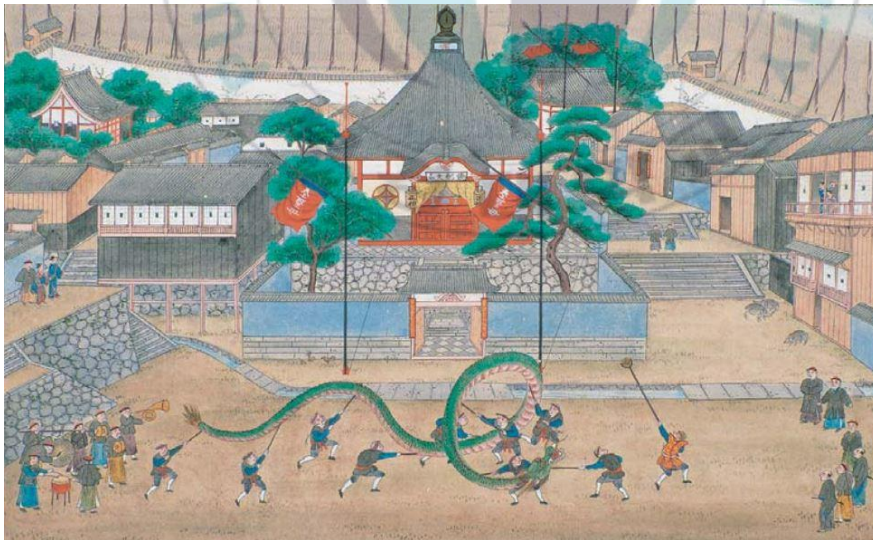
*참조: 야마토야 발간, 에도시대 후기(19세기), (1장 지본색인 34.0cm ×25.0cm) (주)나가사키 문헌사 소장.

<그림 13> 명청락(明清樂) 연주 풍경



*참조: ('도진야시키 두루마리 그림'의 일부), 작가 미상,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그림 14> 용춤 관람도



*참조: ('도진야시키 두루마리 그림'의 일부), 가와하라 케이가 작품, 에도시대 후기(19세기), (1권 지본색인 22.8cm ×36.0cm)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그림 15> 도진야시키 광장에서의 거래도



*참조: ('도진야시키 두루마리 그림'의 일부), 작가 미상, 에도시대 후기(19세기),
(1권 지본색인 35.4cm ×446.0cm)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도진야시키의 입구인 다이몬에서부터 도진야시키 가장 안쪽 정원까지의 풍경이 그려진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인지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 그림에는 광장에서 중국인과 일본 상인들이 거래하는 모습 및 축제·연주풍경 및 일본 기녀 유흥도 등도 그려져 있다. 생선과 채소, 소금과 간장 등 상품별로 2명에서 6명의 생필품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매일 이곳을 드나들었다. 중국인들이 관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그때마다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끝내고 귀국할 때 무역 매출에서 한 번에 차감되었다.

나. 도진야시키에서 신지 차이나타운(新地中華街)으로

<그림 16>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위치 지도



*참조: nagasaki.chinatown 홈페이지

현재의 나가사키 신지 차이나타운의 전신은 도진야시키의 창고였던 신지 하장(新地荷藏)이었다. 신지하장은 1702년 도진야시키의 창고로서 매립된 것으로 신지(새로운 땅)라고 불리어 왔다. 막부개국까지 나가사키의 대외 무역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1870년 도진야시키가 대화재로 훼손되자 화교 점포와 주택을 모두 신지로 이사했다. 1871년 ‘청일우호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중국 복건·광둥·삼강 지역 사람들로 나가사키에 건너와 신지를 무대로 무역 활동을 시작했다. 1899년 내지 잡거령(内地雜居令)이 발표된 후 신지와 도진야시키 앞에 있었던 광장은 중국인 거주 지역이 되었다. 청일전

쟁과 그 후의 화재로 인해 화교 인구수가 급히 감소했다. 1899년 내지 잡거령에 의거하여 무역상 이외의 잡업자들은 내지 거주가 가능하게 되면서 복건성 남부와 광둥성 출신의 화교들은 고베와 요코하마로 이주했다. 복건성 북부 복청(福淸)·복주(福州)에서 온 화교가 많아지고 그들은 신지에 요리업·이발업·양복집 등을 경영하면서 생활했다.⁹⁹⁾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여 타격을 받은 복건 남부 출신 화교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돌아갔다. 북부 출신의 화교는 중국 국내에 경제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남았다. 신지의 화교들은 대부분 요리업이나 잡화업에 종사했다. 그때부터 생활 방식과 의상 등이 점차 일본화 되었다.¹⁰⁰⁾

제2절 나가사키의 차이나타운의 변화

가. 근대 나가사키의 화교

본 절에서는 근대이후 제1세 화교의 일본 내방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이르기까지 직업이나 거주지의 추이와 그 요인에 대해 검토한다. 나가사키의 제일 중국인 출신지에 대해 살펴보면, 복건성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중에서도 북부의 복주 지방 출신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방일 연대는 1899년 외국인 거류지 제도 폐지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나가사키 현의 제일 중국인 인구 추이와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일본 이주의 주요 원인으로 1899년 외국인 거류지 제도의 폐지를 꼽는 연구자들이 있다. 외국인 거류지 제도 폐지가 제정된

99)戴國輝,『華僑-落叶歸根から落地生根への苦悶と矛盾』,研文出版. 1980.

100)坂本夏實, 앞 책. p.51.

메이지 32년(1899년) 칙령 제352호에 의해서 1899년 이후 외국인에 대해서 거류지 이외에서 거주·이전·영업 등 행위가 인정되었다. 또 그들의 방일이 후 큰 역할을 한 존재로서, 원주하고 있던 가족과 친척, 동향자(同郷者)라는 신원 보증인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전임자를 의지하여 일본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성공을 거두자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향자를 또 다시 불러들이는 현상은 나가사키의 중국인 사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⁰¹⁾

그런데 1899년 이후, 거류지 외부지역에서 영업이 인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영업할 수 있는 직종은 요리·이발업 등의 수공적인 직업이나 행상 등 잡일에만 제한되었다. 이들 직종 중 복주 지방 출신자 대부분이 선택한 직업은 포목행상이었다. 화교 제1세의 경우에는, 일본 방문 후의 최초 직업으로, 포목이나 의류 등의 행상 등에 종사한 사람이 8명 있었는데, 특히 일본에 온지 오래된 사람이야말로, 그 경향이 더 현저했다. 이처럼 복주 지방 출신자 중 행상 종사자가 많은 요인은, 복건성 북부는 중국 연안 중에서도 빈곤한 지역으로서 다른 지방 출신 중국 사람이 많이 종사하고 있던 요리업과 이발업 등 업종에 비해서 적은 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 행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¹⁰²⁾

복주 지방 출신자 행상의 범위는 신지(新地)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포목점이나 의류품점이 입점하기 어려운 지역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복주 지방 출신자 직업 구성이 그들의 거주 패턴에 큰 영향을 주어, 행상 장소에서 일본인과 결혼해서 그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그래서 현재도 복주 지방 출신자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면, 다른 지방 출신자와는 달리 전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한편, 행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공을 거두자 나가사키로 다시 돌아와 그 이익을 바탕으로 요리점·이발소·잡화점 같은 가게를 신지와 그 인근에서 개업한 사람도 많아졌다.

101) 楊華, 「中國人の海外移住と日本華僑—横浜華僑を中心に—」 『武藏野學院大學研究紀要』, 2007(4).

102) 肖斌, 「日本長崎華僑社會的形成与特征(1571~1641年)」 『八桂月刊』, 2009(3).

1931년의 만주 사변과 1937년의 중일전쟁은 재일 중국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전쟁 중에 행상에 종사하는 중국인은 일본에서 출국하기 전에 신고가 의무화 되었고, 행상처에서도 특별 고등경찰의 미행 감시를 항상 받았다. 나가사키에서도 중화가에 사는 중국인은 일시적으로 전원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도 중·일 무역이 끊긴 이후, 중국인 무역상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1937년부터 1938년까지 많은 중국인이 중국으로 귀국했다.¹⁰³⁾ 중국인 중에서도, 무역상의 경우 본국에 경제적 기반을 가진 사람이 많아 귀국하기 쉬웠다. 그러나 주로 요리업과 이발업, 행상에 종사하던 복건 지방 출신자는 본국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생활 기반이 없으므로 귀국하지 못하고 나가사키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¹⁰⁴⁾

<그림 17> 나가사키에 거주한 중국인 인구수의 변화



*참조: 아베 야스히사(阿部康久), 「나가사키의 재일 중국인 취업상황과 거류지이동」 『인문지리』 49-4, 1997.

103) 朱慧玲, 「時代と世代交替からみた日本華僑社會の華人化」 『日中社會學研究』, 1993, (日本語) 創刊号, 東京: 日中社會學會.

104) 高橋強, 「戦前の日本華僑社會の變容」 『長期華僑研究會學報5: 長崎華僑と日本文化の交流』, 1989.

나. 현대 나가사키의 화교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 화교 조직의 변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화교의 조직 단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선 동업 단체가 대폭 감소했으며, 기존 경제적 목적으로 조직된 총회와 회관 등이 유명하게 되었다. 현재 나가사키 화교 사회의 구성원은 복건성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복건성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복건성 동향회, 미야마 공방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¹⁰⁵⁾

현재 나가사키 시에는 나가사키 화교총회·화교 부녀회·미야마 공방·복건 동향회·중화총상회·중화요리 동업조합·나가사키 공자묘역대박물관·교우회·차이나타운 상가진흥조합·나가사키 신화교화인협회 총 10개의 화교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미야마 공방·나가사키 화교총회·차이나타운 상가진흥조합·나가사키 신화교화인협회 네 개 조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¹⁰⁶⁾

① 미야마 공방(三山公幫)

미야마 공방은 1899년에 설립된 상호 부조 단체이지만 숭복사(崇福寺) 신도 단체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으며 주요 활동은 숭복사의 운영 자금 징수 및 연간 제례와 축제 행사이다. 현재 숭복사 운영에 협조하는 사람은 미야마 출신자가 아니라도 미야마 공방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미야마 공방에서 주최하던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 원래의 중국풍 방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현재는 미야마 공방의 대표를 포함한 구성원 중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105)戴國輝(1991), 『もっと知りたい華僑』, 弘文堂.

106)羅晃潮, 앞 논문, pp.71-75.

있는 사람도 늘어나 중국 국적에 집착하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민족의식의 저하 현상으로 나가사키 화교가 지켜온 다른 전통도 끊어질 우려가 있다.

미야마 공방에는 윤번제의 당번이 있다. 소속하는 호수가 약 50호이며 매년 8호씩 6년마다 1번씩 순번이 돌아오고 1년 동안의 숭복사 행사 주최를 맡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약 40호의 호수가 매년 8호씩 5년에 1번 당번을 맡는다. 해마다 단가(檀家: 일정한 절에 속하며 시주를 하며 절의 재정을 돕는 집) 수의 감소 때문에 윤번의 회전이 빨라지고 있다. 게다가 참배료나 보신탄 액수도 적고, 미야마 공방에서는 현재 자금 조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¹⁰⁷⁾

② 나가사키 화교총회(長崎華僑總會)

1945년에 성립한 나가사키 화교 총회는 중국 대륙 출신자의 상호 부조 조직이다. 현재 나가사키시에 거주하는 화교 호수는 58호이다. 이 화교총회의 대표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신화교는 거의 없고 노화교 중심의 조직이다.

20년 전까지 나가사키 화교 총회는 꽃구경이나 해수욕 등의 행사를 열었지만 현재는 구성원의 감소와 자금 부족의 영향으로 해마다 몇 차례 친목회가 열리고 있을 뿐이다. 미야마 공방의 경우 숭복사의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지만, 화교 총회는 대표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며 지역성이 강하므로 구성원 감소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회원부터 대표에 이르기까지 중국 국적을 규정하는 데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있다.

③ 차이나타운 상가진흥조합(商店街振興組合)

이 상가진흥조합의 목적은 차이나타운 화교 활동 중심지의 활성화이다. ‘중화가답게 만들자’라는 이념에 협력적·적극적인 것이 조합원 자격이다. 관할 영역은 신지 차이나타운 사거리에 접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107) 王維, 『日本華僑における伝統の再編とエスニシティー祭祀と芸能を中心に』, 風響社, 2001, p.49.

다. 현재 약 40개 점포가 이 조직에 가입하고 있다. 중국인과 일본인의 비율은 1:1이다.

④ 나가사키 신 화교화인협회(長崎新華僑華人協會)

나가사키 신 화교화인협회는 2007년 6월 24일 나가사키에 거주하는 신 화교·화인 대표 50명이 만든 조직이며 중화 문화의 선양, 중일 우호의 촉진, 회원 간의 친목과 교류, 회원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120~130가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안에 노화교도 약간 포함하지만 주로 신 화교들로 구성되어 있다.¹⁰⁸⁾

친목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꽃놀이·해수욕·실내 운동회 등을 비롯하여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친목회를 개최하고 있다. 게다가 이 모임은 일본인과의 교류에도 의욕적이고, 2012년 12월에는 나가사키 중·일 친선 협의회와 공동으로 친목 탁구 교류회도 주최했다.¹⁰⁹⁾

(나) 화교 생활상의 변화

나가사키 화교는 나가사키 신지 주변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1960년대 화교 주거 공간은 신지와 그 주변에만 집중됐으나 1980년대에는 이미 나가사키 전역에 퍼져 있었다. 이것은 사회 활동이 전개되면서 형성된 것이다.

화교 생활상의 변화 중에 두드러진 경향은 일본 국적 취득자의 증가이다.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 즉 ‘귀화’한 사람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공무원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는 일본 여권이 일본에서의 생활에 더욱 편리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화교의 일본 사회진출이다. 신 화교 중에 중국 여권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일본 여권을 취득한 사람도 많다. 어느 나라의 국적을 취할지는 본인의 자유이지만 노화교 중에는 이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2세대 화

108)何彬, 「生活表象与文化認同-日本新華僑華人群体試析」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 43(3), pp.13-18.

109)坂本夏實, 앞 책, pp.55-56.

교들은 ‘귀화한 사람은 화교로서의 자부심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2세대 화교들은 경제 기초를 창출하는 제1세대에 감격스러워 하고 민족의식도 강해 중국 국적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¹¹⁰⁾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중국인의 법적·정치적인 지위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일본의 패전으로 의해 미군 점령체제 하에 들어가자 전승 국민의 중국인은 일본 사람에게 없는 특별배급을 받는 등, 단기간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 받았다. 중국인 중에는 이런 조건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전후에도 중국인의 직업은 요리업·소매업이라는 업종에 한정되고 중국 과자 제조업과 제면업을 제외하면 제조업과 가공업 진출은 거의 없었다. 1961년 때 나가사키 현 거주 중국인 직업을 보면, 요리 음식업 6, 중국 과자 제조업·제면업 4, 의료품점 2, 잡화상 2, 무역업 1 등이다. 이와 같이 중국인의 직업이 소규모의 요식업, 소매업에 국한된 요인으로는 일본의 은행 등 금융 기관이 중국인 자금 대출에 매우 까다로운 태도를 취하여 온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중국인의 거주지가 나가사키 시가지 전체로 확산되는 경향이였지만, 이러한 중국인의 거주지 확산은 그들의 직업 구성의 변화를 동반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의 중국인 거주지 이동 경향으로서, 새로 가족을 가진 2세가 1세의 경영하는 가게에서 독립하여 중화가에서 떨어진 지역에 지점을 개설하는 경우나 고학력의 2세가 1세로부터 사업을 계승하여, 사업 확대를 위해 차이나타운에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1962년 발행된 여일 복건 동향회 주소록(旅日福建同響鄉會住所錄)을 참조하여 1961년 나가사키현 거주 복건성 출신자의 현 주소를 보면, 나가사키현 재류의 89가구 중 70가구가 나가사키 시내에 거주하고 있다. 나가사키 거주 70가구는 시가지의 범위 안에서 나가사키 차이나타운과 그 주변에

110)高橋強, 앞 책, 1989.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1899년의 거류지 폐지 이후에도 그들의 거주지는 구 거류지 내에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중적 거주를 가져온 일본 측의 요인(외적 요인)은, 노동 규제에 대표되는 중국인에 대한 일본 사회의 차별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인 측의 요인(내적 요인)은, 중국 문화의 유지나 동향단체와 동업단체에 의한 상호 부조의 역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중화가 부근에는, 중국 민족 교육을 하는 시중소학교(時中小學校)나 종교적 행사를 하는 당사(唐寺)가 존재하여 이런 조직을 통해서 중국인은 화교 문화를 재생산하고 있었다. 또 차이나타운에는 동향단체인 화교총회와 동업단체인 중화총상회·중화요리동업조합이 존재하여 회원 간의 친목 도모, 상호 부조 또는 중국 본국과의 관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화교총회는 1949년 중화 인민 공화국 성립 이후, 대륙계 및 대만계로 분열되어 양방은 표면적으로는 대립하였으나, 종교적 행사 등은 공동으로 실시하며, 이들의 동향단체와 동업단체의 존재는 중국인 사회의 결속을 유지하고, 집중적 거주를 유지해온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2) 중·일 국교 정상화 전후

(가) 중·일 국교 정상화 이전

화교 2세 및 1955년 이전에 태어난 화교 3세의 학력·직업·거주지 등의 추이에 대해 고찰한다. 우선 그들의 출신 학교를 보면,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자가 많다. 한 통계에 의하면 25명 중에 9명이 대학으로 진학했다.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진학 대학도 현지의 국립대학에 제한되지 않고 수도권과 긴키(近畿) 지방 대학에 진학한 사람도 많았다. 이는 중국인 1세의 경우 저학력자가 많아 일본어 및 일본 사회 적응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자녀 교육을 위한 비용을 아끼지 않는 극성스런 부모가 많았기 때문이다.¹¹¹⁾

그러나 그들의 직업을 보면 여전히 중국집을 비롯한 자영업이나, 중국인

111) 郭梁, 「長崎華僑史迹考察」 『南洋問題研究』, 1989(4), pp.39-48.

경영 기업이나 재단 법인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높은 학력에 걸맞은 직업에의 취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화교 2세대의 경우, 중국인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취업 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왔다. 종래 일본 기업 중에는 외국인 고용을 꺼렸으므로 중국인 중에도 일본 대기업·은행 등에 취업을 거부당한 사람이 많았다. 중국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길은 의사 등 일부 전문 직업을 제외하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일본의 중국인에 대한 엄격한 태도는 1972년 중·일 수교 이전에 특히 현저하였다.¹¹²⁾

1972년 9월 25일~30일 일본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가 중국을 방문하여 모택동(毛澤東) 주석을 만났다. 중·일 양국 쌍방은 우호적인 대화를 거쳐 베이징에서 「중·일 양국 정부의 공동 성명」(中日兩國政府聯合聲明)을 체결하여 중·일 국교 정상화를 명시하였다. 중·일 국교 정상화는 재일 화교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나)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중국인 기업 경영의 확대 원인으로는, 화교 1세에서 2세로의 세대교체 이외에, 1972년 이후의 중국 붐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또, 근래에는 금융 기관도 중국인에 대한 대출을 시작하게 되어, 중국인 경영 기업의 사업 확대가 용이하게 되었다.¹¹³⁾

<표 12> 1981년 나가사키 체류 중국인 지업별 구성(명)

직업	음식	과자	세면	잡화	의류	미용	무역	회사	기타	총계
長崎縣内計	49	4	4	6	0	2	1	2	25	93
新地町	(14)	(1)	(1)	(6)	0	0	0	0	(6)	(28)
龍町	(3)	0	(3)	0	0	0	0	0	0	(7)

112)山田信夫, 『日本華僑と文化摩擦』, 巖南堂書店. 1983.

113)朱慧玲, 『日本華僑華人社會の變遷—日中國交正常化以後を中心に』, 日本僑報社. 2003. pp.21-26.

<표 12> 1981년 나가사키 체류 중국인 직업별 구성(명)

銅座町	(4)	(0)	(0)	(0)	(0)	(1)	(0)	(0)	(1)	(6)
本石灰町	(3)	(0)	(0)	(0)	(0)	(0)	(0)	(0)	(1)	(4)
他の町	(25)	(3)	0	0	0	(1)	(1)	(2)	(16)	(48)
諫早市	1	0	0	0	0	0	0	0	0	1
大村市	1	0	0	0	0	0	0	0	0	1
鳥原市	1	0	0	0	0	0	0	0	0	1
郡部	0	1	0	0	3	0	0	0	4	8
總計	52	5	4	6	3	2	1	2	29	104

* 참조: 아베 야스히사(阿部康久), 앞 논문.

상기 <표 12>는 1982년의 여일 복건 동향회 주소록(旅日福建同響鄉會住所錄)에서 나가사키현 거주 중국인 직업을 거주지별로 분류한 것이다. 주소록에 기록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화교 1세·2세이기 때문에 그 직업 구성에서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1961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중화 요리업을 비롯한 자영업에 특화 되어있다. 이 중에는 회사원이 2명 있지만, 1명의 직장은 중국인 유지가 운영하는 재단 법인이며, 일본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운수 회사에 다니는 1명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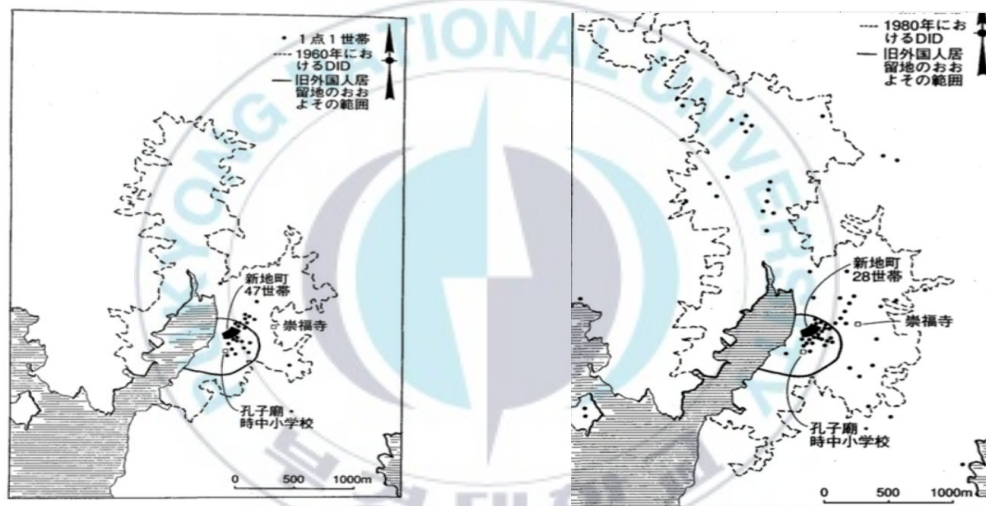
다음에, 1960년대 이후 중국인의 나가사키 시내 거주 패턴의 변화를 집계 수준에서 보자. <그림 19>는 1982년판 여일 복건 동향회 주소록(旅日福建同響鄉會住所錄)에서 작성한 중일 수교 이후 1981년의 나가사키 거주 중국인 93가구의 거주지이다. 이를 <그림 18>과 비교하면, 차이난타운 거주자가 47가구에서 28가구로 감소하고, 차이난타운에 인접한 가고 마치(籠町), 도자 마치(銅座町), 모토 시즈크이 마치(本石灰町)를 포함해도 나가사키 전체 화교 세대수의 절반 정도에 그쳤고, 구 거류지 범위 밖으로 널리 확장되고 있다. 즉 1960년대 이후 중국인 거주지 확산이 차이난타운에서 나가사키 전역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60년대의 <그림 18> 및 1980년대의 <그림 19>에 화교 거주 범위가

1960년대 이후 나가사키시 북쪽으로 확대되며 중국인 거주지 확산의 특징으로서 차이나타운과 그 주변 지역에서 기성 시가지 내로 이동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보인다. 또한 <그림 18>에서는 차이나타운 이외 지역으로 중국인 거주지가 확대되는데 그 원인으로서 이들 지역이 사업운영에 양호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지역에서는 중국인의 강한 사회적 관계는 찾아볼 수 없다.¹¹⁴⁾

<그림 18> 복건성 출신자의
나가사키 거주지(1961년)

<그림 19> 복건성 출신자의
나가사키 거주지(1981년)



*참조: 아베 야스히사(阿部康久), 앞 논문.

한편 중·일 수교 이후 화교 3·4세의 직업구성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6세 이상 화교 3세·4세의 중국인의 학력·직업·거주지 등을 분석해보면 3세·4세 세대에서는 고등 교육 기관 진학자 비중이 더욱 높아진다. 18세 이상 화교 3세의 29명 중에 적어도 14명이 대학·단기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화교 3세 세대에서는, 대체로 2세와 비교하면 취업차별도 완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교육 기관 수료 이후 기술직·전문직 직업에

114) 朱慧玲, 「日本華僑華人社會的特点与現狀」『八桂僑刊』, 1995(2), pp.31-35.

종사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 결과 그들의 직업 종류는 다양하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약사·침구사 등 전문적 직업을 비롯하여 민간 기업에서는 전기·조선 관련 기업·은행·호텔 같은 업종에 취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직업의 다양화로 인하여 그들의 거주지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들 중에는 진학이나 취직으로 나가사키 이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았다. 18세 이상의 화교 3세의 거주지는 28명 중 12명이 나가사키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 그들 중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도 나타났으며, 32명 중 10명이 이미 귀화하였다. 이렇게 화교 3세 세대에서는 사회 계층이나 직업 면에서 일본 사회에 동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의 거주지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¹¹⁵⁾

(3) 현대 나가사키 화교의 변화

<표 13> 현대 재일 중국인 인구수 변화(명)

연도	인구	연도	인구	연도	인구
1950	4,048	2004	487,570	2011	674,879
1980	50,353	2005	519,561	2012	652,595
1990	150,339	2006	560,741	2013	649,078
2000	335,575	2007	606,889	2014	654,777
2001	381,225	2008	655,377	2015	665,847
2002	424,282	2009	680,518	2016	695,522
2003	462,296	2010	687,156	2017	711,486

*참조: 일본 법무성 체류 외국인 통계를 참조하여 만들었음.

<표 13>에 따르면 중국 건국 이후 재일 중국인 인구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1980년의 30년 동안에 4천 여 명에서 5만 여 명으로서 늘었다. 재일 중국인수가 약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1980년~1990년 10년 동안에 5만 명에서 1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 그 증가폭이 3배다. 1990년~2000년 10년 동안에 15만 명에서 33만 5천여 명으로 다시 그 2배 이상 늘어났다. 2000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재일 중국 인구수의 증가

115)朱慧玲, 앞 논문, pp.105-110.

추세가 매년 지속되어 2000년~2010년의 10년 사이에 다시 그 2배 이상이나 늘어나 2017년에는 제일 중국인구수가 70만 명이 훨씬 넘었다.

<표 14> 나가사키 현 체류 중국인(명)

연도	총 인구	영주 인구	정주 인구
2006	3,719	637	94
2007	4,039	661	82
2008	4,371	674	69
2009	4,459	719	64
2010	4,037	701	60
2011	3,598	705	61
2012	3,330	739	52
2013	3,168	748	51
2014	2,985	744	52
2015	2,764	738	54
2016	2,606	722	45
2017	2,559	736	46

*참조: 일본 법무성 체류 외국인 통계를 참조하여 만들었음.

한편 <표 14>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나가사키에 체류하는 중국인의 숫자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3,719명) 2009년(4,459명)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2010년 이후, 나가사키 체류 중국인 인구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영주 인구는 증가하지만 동시에 정주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표 15> 나가사키 현 체류 중국인 인구수 변화 상황 통계

체류 총 인구수	연도		증가폭	감소폭
4천 명 이상	2006	↑	-	
	2007		320	
	2008		332	
	2009		88	
3천 명 이상	2010	↓		422
	2011			439
	2012			268
	2013			162
2천 명 이상	2014			183
	2015			221
	2016			158
	2017			47

위 <표 15>의 통계에 나타나듯 2006년~2010년 동안 나가사키에 체류하는 중국인 인구는 4천 명이 넘었다. 2011년~2013년에는 3천 명 이상이고 2014년~2017년 동안에는 2천 명 이상이었다. 총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 가운데 2006년~2009년 사이에 나가사키 체류 중국인수가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 인구수는 상기 <표 15>에 따라 320명, 332명, 88명이다.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감소폭은 위 표의 통계와 같다.

<표 16> 나가사키 현 체류 중국인 출신지상황 (2006~2011) (명)

지 역	연 도 성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동 북	흑룡강	252	234	233	255	250	223
	길림	274	317	357	356	276	225
	요녕	642	655	719	721	660	604
	소계	1168	1206	1309	1332	1186	1052
화 북	북경	58	70	68	71	61	67
	천진	-	-	-	-	-	-
	산서	20	16	18	20	21	17
	하북	40	39	40	40	31	27
	소계	118	125	126	131	112	111
화 동	상해	517	477	430	385	346	269
	강소	605	633	585	521	447	337
	절강	62	64	60	65	67	77
	안휘	19	42	54	72	60	53
	복건	378	476	602	751	609	473
	강서	7	13	14	16	24	25
	산둥	319	408	487	523	546	585
	소계	1907	2113	2232	2333	2099	1819
화 중	하남	53	75	81	106	77	73
	호북	43	43	60	66	94	88
	호남	9	9	8	9	10	16
	소계	105	127	149	181	181	177
화 남	광둥	23	23	26	38	45	40
	광서	8	11	12	15	13	11
	해남	3	3	4	2	4	3
	홍콩	26	25	33	25	24	28
	마카오	-	-	-	-	-	-
	소계	60	62	75	80	86	82
서 북	산서	11	11	12	15	17	20
	감숙	3	2	2	1	2	3
	청해	-	-	-	1	2	2

	영하	13	14	14	5	-	2
	신장	11	11	11	10	7	9
	내몽골	30	46	65	63	56	41
	소계	68	84	104	95	84	77
서 남	사천	39	34	31	30	39	26
	귀주	10	8	8	7	8	8
	운남	6	4	4	5	5	3
	중경	-	-	-	-	-	-
	서장	-	-	-	-	-	-
	소계	55	46	43	42	52	37
대 만	대만	107	108	99	111	112	95
	기타	126	163	176	150	120	133
	불명	5	5	4	4	4	15
	총계	3,719	4,039	4,317	4,459	4,037	3,598

*참조: 일본 법무성 체류 외국인 통계표를 참조하여 만들었음.

<표 16>에 의하면 나가사키 현 체류 중국인 출신지 상황 통계(2006년~2011년)를 살펴보면, 2006년(3,719명)부터 2009년(4,459)까지는 증가 추세이다. 2010년(4,037)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출신지역별로는 화동 지역 출신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며 이어서 동북 3성 지역 출신이 많다. 예를 들면 2006년의 경우 나가사키 현 체류 중국인 총 3,719명 중에 51%(1,907명)가 화동지역 출신, 31%(1,168명)이 동북 3성 지역 출신으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신지 성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나가사키 현 출신지 성별 체류 중국인 인구수 순서상황

연도 성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요녕	1 (642)	1 (655)	1 (719)	2 (721)	1 (660)	1 (604)
강소	2 (605)	2 (633)	3 (585)			
상해	3 (517)	3 (477)				
복건			2	1	2	3

			(602)	(751)	(609)	(473)
산동				3 (523)	3 (546)	2 (585)

<표 17>에 의하면 나가사키 현 출신지 성별 체류 중국인 인구수 순서상 황(2006년~2011년)에 대해 살펴보면, 인구수가 제일 많은 5개성은 요녕·강소·상해·복건·산동이다. 특히 요녕성이 2006년~2011년 6년 동안 제1위를 차지했다. 노화교 집중 출신지인 복건성도 2위·3위에 위치했다. 부산 구화교 집중 출신지인 산동성 출신자도 많다. 아마도 중국 노무수출성(勞務輸出省)으로서 일본으로 보낸 노동자가 많다고 추정되었다.

제3절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의 현황분석

가. 거리지도 분석

<그림 20> 나가사키 신지 차이나타운과 도진야시기 위치 지도



참조: 필자 2017년 11월 촬영·편집.

<그림 20>에 따르면 A구역은 에도시대 도진야시기(唐人屋敷) 유적지이고 B구역은 신지 차이나타운(新地中華街)이다. 도진야시기에서는 미나토

공원(湊公園)을 내려다 볼 수 있다. 미나토 공원에서 신지 차이나타운으로 들어가면 바로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남문이다. 동·서·남·북 문의 사이에 차이나타운 상가가 분포되어 있다. 구체적인 상점 분포 상황은 <그림 27>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림 21>은 현재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거리지도이다. 각 구역별 점포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남북 250미터의 사거리에는 나가사키 시의 자매도시 복건성 복주시의 협력으로 돌로 된 계단이 깔려 있고 중국 음식점이나 중국 잡화점 등 약 40개의 점포가 자리 잡고 있다. 차이나타운의 사방, 즉 동·서·남·북의 입구에는 중국식 대문(牌樓: 패루)이 세워져 있다. 이 문들은 1986년(쇼와 61년)에 상가진흥 조합이 발전의 소망을 담아 세운 것으로 자재는 중국 복주에서 가져왔으며, 건축도 복주의 장인에 의한 것이다. 사신도(四神圖)가 그려져 있으며 풍수학에 근거하여 배치되어 있으며, 문의 포석에 새겨진 사신도의 색깔은 음양오행에 기초하고 있으며, 각각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다. 현무문(북문)에 걸린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의 글씨는 건설 당시 중일 우호 협회 명예회장으로 있던 왕진(王振)의 글씨이다. 차이나타운 거리는 아치형 일루미네이션으로 장식되어있다.¹¹⁶⁾

116)王小榮, 「日本中華街的發展演變及其認知模式研究」『世界建筑』, 2012, p.114.

※：採訪過

★：中國料理店

●：中國雜貨店

*：其他

■：日本店

中華門（南門）

つりがね薬

駐車場

（お菓子処）
双葉屋 ※

占 ■

蘇州林（符合所）★

中国雜貨店
MinMin2号店 ※

駐車場

*① 三和製面所新地店

■ BANDE Café ■ 駐車場

中華園 ★

魚池

★ 龍園

★ 蘇州林

● 中国雜貨店
MinMin本店

※ 春夏秋冬

★ 新和樓

※ ★（中華料理）王鶴

■ 翠瓶

★ 江山樓（中華街本店）

中華門（東門）

長崎唐菓子・蘇州林 ●

高木べつ甲店 ■

江山樓株式会社（三層办公楼）*

長崎お産に江山の卓 ★

（上海料理）龍園 ★

江山樓 ★

友誼商店 ● ※

富川ビル ■

■ 翠瓶

★ 江山樓
工事中

■ 長崎興人堂

■ 三養製面

● 福建（中華菓子）

★ 桃華園別館

*① 華僑會館

● 中國貿易公司

● 村上眼科

● 泰安洋行

★ 會樂園

出島亭 ★

長崎 ワシントン ホテル
HOTEL

西湖 ★

永興号製面所 *①

桃華園 ★

新民樓 ★

華獅庭 ★

京華園 ★

中華門（西門）

中華門（北門）

筆者製成於
二零一七年十一月二十四日

<표 18>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국가별 상점 분포

국적	국적별 상점	종류	종류별 상점
중국	32	요리점	20
		잡화점	5
		제면소	3
		사무소	2
		과자점	2
일본	12	공예품점	3
		과자점	3
		커피숍	1
		점집	1
		아파트	1
		안과	1
		호텔	1
		약국	1
총계	44		44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의 국가별 상점 분포를 정리한 것이 <표 18>이다. <표 18>에 의하면 총 상점 44개 중에 중국인 상점 32개, 일본인 상점 12개의 분포이다. 상점의 업종별 분류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인 상점은 음식 관련 상점 27개, 잡화점 5개, 사무소 2개, 일본인 상점은 음식관련 상점 4개, 공예품 3개, 기타 상점 5개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표 19>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구역별 상점 분포

구역(區)	상점수	중국	일본
A'	8	4	4
B'	8	7	1
C'	9	7	2
D'	19	14	5
총계	44	32	12

부산 차이나타운은 사거리 구역은 A~D,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사거리 구역은 A'~D'로 표시했다. <그림 21>에 의하면 우측 상단(A'), 우측하단

(B'), 좌측상단(C'), 좌측하단(D')로 구분하여, 각 구역별 상점 분포에 대해 살펴보면 A'구역의 상점 수는 8개(중국 4개, 일본 4개), B'구역의 상점 수는 8개(중국 7개, 일본 1개), C'구역의 상점 수는 9개(중국 7개, 일본 2개), D'구역의 상점 수는 19개(중국 14개, 일본 5개)이다. 특히 D'구역에 상점수가 제일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의 국가별 상점 구역분포를 보면 D'구역에 중국 상점이 제일 많고 일본 상점도 다른 구역보다 상당히 많다. 따라서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중심구역은 바로 D'구역이라 말할 수 있다.

<표 20>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중국 점포 현황표

방향 종류	A'	B'	C'	D'	합 계
음 식 점	1.蘇州林 2.中華園	5.出島亭 6.西湖 7.桃華園 8.新民樓 9.華獅亭 10.京華園	12.龍園 13.蘇州林 14.春夏秋冬 15.新和樓 16.江山樓 (本店) 17.王鶴	19.江山樓 20.籠園 21.江山樓 22.江山樓 23.桃華園別館 24.會樂園	20
잡 화 점	3.Minmin 2号店		18.MinMin 本店	25.友誼商店 26.中國貿易公司 27.泰安洋行	5
제 면 점	4.三榮製麵	11.永興製麵		28.三和製麵	3
사 무 소				29.江山樓(株式會社) 30.華僑會館	2
과 자 점				31.福建(中華菓子) 32.長崎唐菓子 (蘇州林)	2

합계	4	7	7	14	32
----	---	---	---	----	----

<표 21>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D'구역 점포 상황표

국가별	종류별		상점 수	소계
중국	음식점	19. 江山樓	6	14
		20. 籠園		
		21. 江山樓		
		22. 江山樓		
		23. 桃華園別館		
		24. 會樂園		
	잡화점	25. 友誼商店	3	
		26. 中國貿易公司		
		27. 泰安洋行		
	과자점	31. 福建(中華菓子)	2	
32. 長崎唐菓子 (蘇州林)				
사무소	29. 江山樓株式會社	2		
	30. 華僑會館			
세면소	28. 三和製麵	1		
일본	공예품점	高きべつ甲店	2	5
		幸瓶		
	과자점	長崎異人堂	1	
	아파트	富川ビル	1	
	안과	村上眼科	1	
총			19	19

상기 <표 18>~<표 21>에 따르면 신지 차이나타운 44개 점포 중에 화교 점포는 총 32개로 거의 73%를 차지한다. 같은 중국 음식점의 본점과 지점이 동시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강산루(江山樓) 4곳, 용원(龍園) 2곳, 소주림(蘇州林) 2개가 있다. 외관은 중국 전통 식당인데 내부에는 중·일 양국의 식당 스타일을 찾아볼 수도 있다. 중국 레스토랑과 일본 전통식 레스토랑을 송년회나 결혼식 회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일본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중국 음식 맛을 적당히 조정했다. 예를 들어 서호(西湖) 식당에서는 사천요리(四川料理)의 매운 맛을 다소 줄이고, 용원(龍園)식당에서는 상해 요리의 단맛을 감소시켰다. 거리 곳곳에 있는 짬뽕과 카스테라·고

기 빵(가쿠니만두: 角煮饅頭)은 중국 본토와는 다르지만, 신지 차이나타운의 대표 음식에서 나가사키시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다. 중국 잡화점의 경우 나가사키 관광 상품과 중국의 대표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제면소는 총 3개가 있고 모두 50~60년 이상 된 전통의 오래된 집이다. 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전국 배송도 가능하다. 강산루(江山樓)와 화교회관을 제외하면 다른 식당의 사무실은 식당 안에 설치하고 있다.

나. 인터뷰사례 분석

2017년 11월 17일~19일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내 중국인 관련기관·상점(총 44개)중에 대표적인 나가사키 공자묘 역대 박물관(1곳), 나가사키 시중어학원(1곳), 중국 음식점(1곳), 중국 잡화점(1곳) 등 4곳을 방문·설문·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터뷰사례

(가) 반수귀(潘秀貴) 씨

-나가사키 화교총회 부회장·공익재단 법인·나가사키 공자묘 중국역대 박물관 관장·상무이사

‘나가사키 시에 태어난 제4대 화교로서 원적은 복건성 복청시 고산촌(福建省福清市高山村)이다. 나가사키 시중 초등학교(時中小學校)를 졸업한 이후 일본인 중학교와 대학에 진학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중국 식당을 경영한 적이 있었다. 1999년부터 공자묘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2000년에 북경화문학원(北京華文學院)에서 1년 동안 중국어를 연수했다. 부인은 일본인이며 자녀들은 일본인 학교를 다니고 있다. 자녀들은 현재 중국어 공부를 하지 않지만 고등학교 2학년의 장남은 향후 중국으로 유학 보낼 생각이다.

공자묘는 1893년(메이지 26년)에 청나라 정부와 재일 화교들이 공동출자하여 만들었다. 일본의 유일한 전통 중국식 공자묘로서 그 건축 규모는 중

국 산둥성 곡부(山東省曲阜)와 대등하다. 공자묘로 들어가 의문(儀門)을 들어서면 정원 양쪽에 72명의 현자(賢人) 석상이 있는데 석상 앞에 각 현자의 이름이 조각되어 있다. 모든 석상은 북경의 미술 공장에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1층 대성전에는 공자상이 있다. 지붕 밑에 있는 현판에는 ‘유교무류(有敎無類)’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어떤 경우든 교육을 통해 차별을 없앨 수 있다는 뜻이다. 대성전 안에 공양되어 있는 공자상은 높이 2미터로 일본 국내에서 가장 큰 좌상(坐像)이다. 박물관 2층은 공자묘 90주년을 기념하여 개설된 중국 역대 문물의 전시관이다. 특별 전시실에서 중국 국가 박물관이 제공하는 문화재(국보급 문화재)들이 전시되어 있다. 3층은 나가사키 공자묘의 사료관이고 중·일어를 대조한 『논어』, 그리고 공자 및 그의 제자의 사적들이 전시되어 있다.

공자묘 박물관에는 매일 방문 고객들이 찾아온다. 배를 타고 나가사키에 온 중국인 관광객들도 있지만 일본인 관광객과 학생들이 더 많다. 유교 사상은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중·일 양국은 모두 공자묘 문화 발전에 힘을 쓰고 있다. 공자묘 중국 역대 박물관의 존재는 중·일 양국의 상호 이해와 문화 교류를 촉진시켜 왔으며, 현재도 활발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광정의(郭定儀) 씨

-나가사키 시중어학당(前 나가사키 시중 초등학교 후계) 원장

‘사가(佐賀)출신의 제3대 화교이다. 어머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나는 어릴 적 중국어로 말하면 어머니까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화가 나 집에서 중국어 사용을 금지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화교 학교 운영이 매우 좋았다.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으나 나가사키 시중초등학교의 운영이 점차 악화되어 폐교되었다. 표면적 원인은 학생 감소와 운영난인데 실제적 원인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화교 학교 자체의 약점을 들 수 있다. 화교 학교 교육 체제가 일본 사회의 수요에 대응할 수 없어 화교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컸으며, 그리고 화교 가정에도 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일본 정부가 중국 화교에 대해 취한 일본인 동화 정책이다. 일본 국적을 취득한 화교와 그 자녀는 일본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법을 위반한 행위로 취급받았다. 매년 90%의 화교 청년들이 일본인과 결혼한다. 새 국적법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 일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하므로 따라서 화교 학교 학생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화교 학교의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화교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싶으면 일본 고등학교에 입학해야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화교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중학교 졸업장 밖에 없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 사회의 수요와 화교의 생존 발전이 부합되지 않았다.

나가사키 시중 초등학교는 1905년 창립된 이후 중·일 전쟁 시기에도 계속 개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8년에 폐교되었다가 이듬해 ‘시중어학당’으로 다시 설립되었다. 나가사키 거주 화교를 대상으로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치고 중국인 유학생의 일본어 공부도 도와준다. 학생 수는 많지 않다. 일본인 초·중·고 학생 수가 급증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의 발전으로 중·일 무역 왕래가 빈번해지자 중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인 부모들이 중국어 공부를 중시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화교 자녀의 입학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우리는 화교 자녀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하지만 일본에서 생활하는 화교들은 현재 영어와 일어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만약 향후 화교의 자녀들이 스스로 중국어를 배우려 한다면, 그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다) 진우계(陳優繼) 씨

-주식회사 사해루(四海樓) 사장님

‘나는 1965년 나가사키에서 태어난 제4대 화교이다. 증조부는 복건(福建) 성 복청현(福淸縣)에서 나가사키로 건너왔다. 그는 돈을 빌려 장사하면서 무역을 시작했다. 청일 전쟁이 일어난 1894년 일본은 재일 중국인들에 대해 귀국 명령을 하달했다. 증조부를 포함해서 중국인 267명만이 나가사키에 남았다. 1895년 청일 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인들은 중국인들을 경멸하는 풍조가 심해져, 화교들은 어려운 세월을 보냈다.

증조부는 1899년 도진야시키 대문 서쪽에 사해루를 개업했다. 1902년에는 일본 여자와 결혼하여 2남 3녀를 두었다. 그 둘째 아들이 나의 할아버지 진양춘(陳揚春)이다. 증조모는 중화민국이 성립된 이후 중화민국 국적으로 바꾸었다. 할아버지와 나가사키의 화교인 할머니가 결혼했고, 그들의 장남 진장치(陳長治)가 나의 아버지이다.

1937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인 학교에 다니던 화교 자녀들은 시중소학교로의 전학을 강요당했다. 그리고 화교 학교에서는 일본인에 의해서 검정된 교재를 사용해야만 되었다. 1937년 중화민국 정부는 재일 화교들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나가사키에 정착한 화교들은 나가사키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1944년 사해루는 강제 영업 중지를 당하고 전쟁말기 연합군의 공습으로 파괴되었다. 1951년에는 할아버지 형제가 원래 사해루가 있던 곳에 새로운 사해루를 다시 세웠다. 1973년(쇼와48년) 11월 14일 규모를 확대할 목적으로 마쓰가에초(松が枝町)의 위치로 이전했다. 1999년(헤세이 11년) 1월부터 점포개축에 들어 다음 2000년(헤세이 12년) 7월 4일 현 매장이 개점했다.’

(라) 주민(朱敏) 씨

-북인(福仁) 무역 주식회사 이사장·중화요리 ‘춘하추동’ 사장님·중국 잡화점 사장님

‘나는 상해에서 온 화교, 즉 신화교(新華僑) 제1세이다. 2000년 4월 나가사키에 온 이후 2년 동안 일본어를 배우려고 어학원에 다녔다. 그 후에 4년제 대학에서 일본 문화·문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대학 교수님의 추천으로 중·일 무역 회사에 취직하여 주로 나가사키의 현지 차를 수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무역 회사에서 퇴직한 뒤 바로 신지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잡화점을 열었다. 수년간의 경영을 거쳐 사업을 확장하여 맞은편 거리에 두 번째 중국 잡화점을 개업하였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잡화점 옆에 있는 5층 건물을 사들여, 중화요리점 ‘춘하추동’을 개업했다. 1층·2층은 식당이고, 3층은 창고이며, 4층은 사무실, 5층은 개인 주택이다. 현재 3개 점포의 경영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 일본인 직장인과 나가사키로 가족 여행 온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또한 중국에서 배를 타고 온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우리 식당의 주요 고객이다. 식당의 요리 재료와 중국 잡화점의 상품들은 모두 중국인이 경영하는 일본 무역 회사를 통해 수입하고 있다.

나는 일본의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곳에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흑룡강성(黑龍江省) 출신 중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딸 한 명씩을 두고 있다. 자녀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일본식 교육을 받고 또 영어를 배우고 있으므로 중국어 학습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들은 상해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어 표준어로 말할 수 없다. 나는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일본법에 따라 납세하고 있다. 그래서 선거권을 제외한다면 거의 일본인과 똑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나는 본인의 화교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노화교(老華僑)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신화교가 중국 국내와의 연관이 더욱 밀접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부모님과 친구, 친척들은 대부분

중국 국내에 있으므로, 나는 적어도 일 년에 두세 번은 중국을 다녀온다.

현재 식당과 잡화점 종업원 중에 중국인 유학생 두 명과 일본 비자를 가진 중국인 요리사 한 명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 직원이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본인 고객님과 중국인 고객님에게 다 좋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으며 중·일 직원 간의 협력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식당뿐만 아니라 중·일 민간 교류의 우호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인터뷰 분석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인터뷰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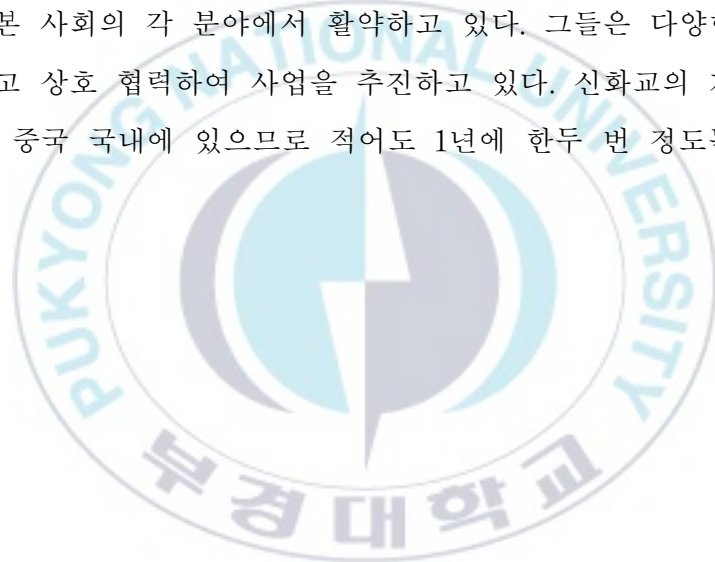
첫째,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화교는 크게 신·노화교로 나눌 수 있다. 그 구분 시기는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전후이다. 따라서 중·일 국교 정상화 이전에 일본에 온 중국인들을 노화교라고 부른다. 그들은 방일 당시 일본 언어·풍속·습관·문화·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방’이나 ‘향’을 통해서 지역적인 각종 조직을 설립하고 상부상조하며 화교사회의 기반을 만들었다.

둘째, 노화교 기업인들의 사업의 특징은 ‘자수성가’(맨주먹으로 집안을 일으키다)이다. 과거 일본은 국적조항 등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노화교들이 일본 주류사회에 융화가 어려웠다. 취직도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일본인과 동등한 승진은 바랄 수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화교는 일본의 적대국 국민으로 취급되어 일본사회에서 중국인 멸시 풍조가 발흥했다.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중국어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중국어를 잘 못한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전에는 노화교들이 중국 고향으로 돌아가기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국교 정상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중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무역을 위해 자주 간다.

셋째, 나가사키 화교 교육시설로서 1905년에 ‘나가사키 시중학당’이 개설되었다. 중화민국 건국 직후인 1918년에는 중화민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학제를 변경하였고 1919년에는 교명을 나가사키 시중초등학교로 바꾸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압력으로 중국으로 귀국한 화교가 늘어나 시중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했다. 1988년엔 정치적 어려움과 학생 수 급감으로 학교를 폐쇄하였으나 1989년 다시 시중어학당으로 개설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영되고 있다.

넷째, 신화교는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및 1978년의 중국 개혁·개방 이후 일본에 온 사람들로 구성된다. 개방적인 사회 환경 덕분에 일본에서의 취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신화교의 전문 인력은 유창한 일본어 능력뿐만 아니라 일본사회의 문화·습관 및 세련된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들은 다양한 동업조직을 성립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화교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중국 국내에 있으므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중국으로 돌아간다.



제Ⅳ장 맺음말

한·중·일 3국 교류 역사는 고대 이래 매우 오래되었으며 상호간에 미친 영향 또한 대단히 크다. 그 중에 중국인의 해외 활동과 이주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특히 화교의 해외 활동은 세계 각지에 널리 퍼져 있으며 중국과 다른 나라 간의 교류의 매개자이자 국가 간 상호 인식과 이해를 위한 중요한 교량이 되기도 하였다. 일본과 한국 화교 역사와 현황에 대한 연구는 중국인의 해외 활동과 이주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화교들의 고향과 현 거주지에 대한 현황과약을 통해 21세기 글로벌리즘 시대의 대국가 간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중국인의 입장에서 한·일 양국의 화교, 특히 그 대표적인 항구도시 부산과 나가사키의 차이나타운을 연구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화교에 대한 기존 연구문헌 및 인터뷰, 차이나타운 거리 답사 등을 통하여 각 차이나타운 화교의 현황·특징 및 그 당면 과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한 결과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한·일 양국의 항구도시 부산과 나가사키의 차이나타운 공통점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가 주도하에 중국인 집중거주지가 형성되었다. 부산에는 청국조계지, 나가사키에는 도진야시키가 만들어졌다. 둘째, 중국인의 진출 이전에 다른 나라의 세력이 이미 존재했다. 부산에는 일본인 전관거리가 설치된 이후 청국 조계지가 설치되었다. 나가사키에는 데지마에 네덜란드인들 집중거주지가 만들어졌다. 셋째, 차이나타운의 변화과정에는 모두 화재로 인해 이전되어 현재 위치에 다시 재건되었다. 넷째, 국가 관계로 인해 화교들이 차별정책을 당했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으며 한국전쟁 중

에 중국은 한국의 적대국으로 참전했다. 따라서 한국의 구화교들은 한국 전쟁 이후 한국 국내의 반공풍조와 한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힘든 세월을 겪었고, 화교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대륙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나가사키에 남았던 화교들 역시 차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후 오래 시간동안 힘든 세월을 보냈다. 다섯째, 한·일 양국은 중국과의 국교수교를 전후하여 화교사회가 신·구(신·노) 화교로 구분되어 있다. 부산에서 1992년 한·중 수교를 기준으로 신·구 화교로, 나가사키에서는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를 기준으로 신·노 화교로 나뉘어졌다. 여섯째, 차이나타운의 양식이 비슷하다. 부산과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은 모두 사거리를 중심으로 상점과 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다. 사거리 출입구마다 중국 이미지를 상징하는 패루가 있다. 차이나타운에서는 해마다 중국 전통 축제가 열린다. 부산의 차이나타운 축제와 나가사키의 랜턴축제(ランタンフェスティバル)가 이미 화교축제에서부터 전국적인 관광축제로 발전되었다.

한편 부산과 나가사키 화교사회 및 차이나타운의 차이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화교의 역사적인 특징을 말하자면, 부산 화교는 이민송출국(移民送出國) 중국의 정치적 비호 아래 ‘상국’ 국민 신분으로 그 역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중 양국의 전근대적인 종속관계 속에서 청국정부의 종주권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아래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 한편 나가사키 화교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해외진출을 시작하여 ‘방’이나 ‘향’을 통해서 지역적인 각종 조직을 설립하여 상부상조하며 화교사회의 기반을 만들었다. 둘째, 부산 화교는 중국 산둥성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고 구화교의 경우 대부분이 대만 국적을 갖고 있다. 나가사키 화교는 중국 복건성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고 노화교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대륙 국적을 갖고 있다. 셋째, 부산 차이나타운에 대만계 교육시설이 있고 화교 교육 경력은 다양하다.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에는 공자묘에 중국어 교육을 위해 설립

한 시중어학당이 있지만, 정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따라서 노화교 및 신세대 화교들의 중국어 수준은 매우 낮다. 넷째, 차이나타운 규모와 구성이 다르다. 부산 차이나타운에는 100여개 상점과 각종 시설이 있으며 중국·한국 가게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관련 가게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각종 상점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의 총 40여 개 상점과 시설 중에 단지 중국과 일본의 상점이 있으며 같은 식당 내에서도 중국식·일본식 연회장이 각각 구비되어 있다. 다만 종류 및 규모가 부산 차이나타운보다 작다.

현재 국제 학계에서 화교관련 연구가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역사학·인류학·정치학·경제학 등 학계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화교를 제외하고 화교 경제가 활발한 동남아시아 및 신흥 이민 국가의 미국·캐나다·호주 화교 연구도 새로운 추세를 이루고 있다. 향후 역사뿐만 아니라 화교 단체·교육·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 박원표(1967), 『향토 부산:-부산의 고금시리즈 제3부』, 태화출판사.
- 박은경(1986), 『한국화교의 종족1』, 한국연구원.
-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1991), 『釜山市史』 (제3권), 대원인쇄문화사.
- 나애자(1998), 『한국현대해운업사연구』, 국가자료원.
- 최해균(2000), 『부산사탐구』, 부산을 가꾸는 모임·도서출판 지평.
- 박화진(2003), 『부산의 역사와 문화』, 부경대학교 출판부.
- 양필승·이정희(2004),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삼성경제연구소.
- 박경태(2008), 『소수자의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 김태만(2009), 『내 안의 타자(他者): 부산 차이나이스 디아스포라』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강진아(2011), 『동순태호-동아시아 화교 자본과 근대 조선』, 경북대학교출판부.
- 조세현(2013), 『부산화교의 역사』, 산지니출판사.
- 内田直作(1949), 『日本華僑社會の研究』, 同文館.
- 神代祇彦(1966), 『長崎異國風土記』, 藤木博英社.
- 浜崎國男(1978), 『長崎異人街誌』, 葦書房.
- 深淵久(1979), 『四海樓物語』, 西日本新聞社.
- 戴國輝(1980), 『華僑-落叶歸根から落地生根への苦悶と矛盾』, 研文出版.
- 内田直作(1982), 『東南アジア華僑の社會と經濟』, 千倉書房.
- 山田信夫(1983), 『日本華僑と文化摩擦』, 巖南堂書店.
- 山本紀綱(1983), 『長崎唐人屋敷』, 謙光社.

- 長崎市教育委員會 編(1990),『長崎居留地 大いなる遺産』,長崎市教育委員會.
- 戴國輝(1991),『もっと知りたい華僑』,弘文堂.
- 菅原幸助(1991),『日本の華僑』,朝日文庫.
- 楊昭全·孫玉梅(1991),『朝鮮華僑史』,中國華僑出版公司.
- 飯島涉(1999),『華僑華人史研究の現在』,汲古書院.
- 過放(1999),『在日華僑アイデンティティの変容: 華僑の多元的共生』,東信堂.
- 王維(2001),『日本華僑における伝統の再編とエスニシティー祭祀と芸能を中心に』,風響社.
- (2003),『素顔の中華街』,洋泉社.
- 長崎孔子廟中國歷代博物館(2003),『中國古代文物展図集 2003』,長崎孔子廟中國歷代博物館.
- 長崎縣教育委員會 編(2003),『中國文化と長崎縣』,長崎縣教育委員會.
- 朱慧玲(2003),『日本華僑華人社會の變遷—日中國交正常化以後を中心に』,日本僑報社.
- 橫山宏章(2006),『長崎が出會った近代中國』,海鳥社.
- 楊韻平(2007),『汪政權与朝鮮華僑(1940~1945)—東亞秩序之一研究』,稻香出版社.
- 王恩美(2008),『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め韓國華僑—冷戰体制と‘祖國’意識』,三元社.
- 王正廷(1930),『朝鮮華僑概論』(駐朝外交機關向外交部提交的報告).
- 盧冠群(1956),『韓國華僑經濟』,台北,海外出版社.
- 華僑志編撰委員會(1958),『華僑志—韓國』.
- 張兆理(1960),『韓國華僑教育』,台北,世界文化出版社.
- 邵毓麟(1980),『使韓回憶錄』,台北,傳記文學出版社.
- 秦裕光(1983),『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台北,韓國研究學會.
- 陳建康(1988),『大韓民國与華僑概況』,台北,中正書局.

時中編纂委員會(1991), 『時中 長崎華僑 時中小學史文化事誌』, 博文社.

毛起雄等編(1994), 『中國僑務法律法規概述』, 中國華僑出版社.

王淑玲(2003), 『韓國華僑歷史与現狀研究』,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崔承現(2003), 『韓國華僑史研究』, 香港社會科學出版社有限公司.

朱慧玲(2003), 『中日關係正常化以來日本華僑華人社會的變遷』, 廈門大學出版社.

논문

譚永盛(1976), 「조선말기의 청국상인에 관한 연구-1882년부터 1885년까지」,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경(1981), 「한국화교사회의 역사」 『진단학보』 제52집.

나애자(1988), 「개항후 청일의 해운업침투와 조선의 대응」 『이화사학연구』 제17-18합집.

이강욱(1993), 「개항이후 부산의 조계지에 대한 고찰」,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필승(2000), 「한국 화교의 어제, 오늘 및 내일」 『국제인권법』 3.

장수현(2004), 「한화(韓華), 그 배제의 역사」 『당대비평』 제19집.

왕은미(2005), 「미국정기의 한국 화교사회: 미군정·중화민국정부·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 한국 연구』 제7집 1호.

이정희(2007), 「중일전쟁과 조선화교-조선의 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35집.

이종우(2007), 「한국화교의 현지화에 관한 연구-부산거주 화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중규(2007), 「화교의 생활사와 정체성의 변화과정 : 군산 여씨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0권 2호.

- 장진아(2007), 「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현대 동아시아 경제사」 『역사비평』 여름호.
- 오미일(2008), 「개항(장)과 이주상인」 『한국근현대사연구』 47집.
- 박준형(2009), 「청일전쟁 발발 이후 동아시아 각지에서의 청국인 규제규칙의 제정과 시행-일본, 조선, 대만의 예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47집.
- 장세훈(2009), 「‘부산 속의 아시아’, 부산 초량동 중화가의 사회생태학적 연구」 『경제와 사회』 2009년 봄호.
- 황보영희(2009), 「부산 청국조계지에 관한 연구」 『항도부산』 제25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 박규택·하용삼·변광석(2010), 「이질적 인식과 실천의 장으로의 로컬, 부산 차이나타운」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0권 제3호.
- 왕은미(2010), 「한반도 화교들의 한국전쟁」 『중국학연구』 제30집.
- 안미정(2011), 「부산 화교의 가족 분산과 국적의 함의」 『역사와 경제』 제78호.
- 구지영(2011), 「동아시아 해항도시의 이문화 공간 형성과 변동」 『石堂論叢』 제50호.
- 김나영(2011), 「부산 차이나타운의 가로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성과 국가주의 간의 길항」 『역사와 경계』 제78호.
- 강진아(2012), 「만주사변 전후 재한화교 문제의 양상」 『동아사회연구』 제120집.
- 김승(2013), 「일제강점기 부산화교의 존재형태와 사회정치적 동향」 『제56회 전국역사학대회: 역사속의 소수자』(발표문).
- 綠川勝子(1969), 「万宝山事件及び朝鮮内排華事件について一考察」 『朝鮮史研究會論文集』.
- 高橋強(1989), 「戦前の日本華僑社會の變容」 『長期華僑研究會學報5:長崎華

- 僑と日本文化の交流』.
- 朱慧玲(1993),「時代と世代交替からみた日本華僑社會の華人化」『日中社會學研究』.
- 羅晃潮(1987),「日本長崎華僑史淺探」『華僑華人歷史研究』(1).
- (1987),「試論日本華僑同鄉會館的演變」『學術研究』(1).
- 郭梁(1989),「長崎華僑史迹考察」『南洋問題研究』(4).
- 童家洲(1990),「明末清初日本長崎福建籍華僑述略」『福建師範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4).
- 羅晃潮(1995),「試論日本華僑社會的華人化」『暨南學報 (哲學科學社會版)』(1).
- 朱慧玲(1995),「日本華僑華人社會的特点与現狀」『八桂僑刊』(2).
- 黃禹生(1998),「日本長崎孔子廟」『四川文物』(6).
- 王維(2001),「海外華人傳統文化的繼承与創造—以日本長崎爲例」『海交史研究』(2).
- 過放·喬云(2004),「初期日本華僑社會」『南洋資料譯叢』(4).
- 過放·劉曉民(2005),「日本華僑的認同變化」『南洋資料譯叢』(3).
- 何彬(2007),「生活表象与文化認同—日本新華僑華人群体試析」『中山大學學報 (社會科學版)』43(3).
- 楊華(2007),「中國人の海外移住と日本華僑—横浜華僑を中心に—」『武藏野學院大學研究紀要』第4輯.
- 張玉玲(2007),「觀光地中華街の形成と發展から見る日本人と華僑が試みた「共生」」『愛知淑徳大學論集こんばんは學部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科篇』7号.
- 鞠玉華(2008),「對当前日本華僑學校發展狀況的思考」『暨南大學華文學院學報』.
- 裘曉蘭(2009),「日本華僑學校的法律地位及其所帶來的問題」『華僑華人歷史研

究』.

肖斌(2009),「日本長崎華僑社會的形成与特征(1571~1641年)」『八桂月刊』(3).

于德豪·張次正(2012),「近代韓華移民史初探-從歷史進程及經濟活動着眼」『
嶺東學報』 31(3).

